

표준 언어 예절



국립국어원

머 리 말

‘표준 언어 예절’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호칭어, 지칭어, 경어법에 대한 혼란과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자 1992년에 ‘표준 화법 해설’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우리말의 언어 예절에 대한 표준을 담은 지침으로서 20년 가깝게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족 구성의 형태가 달라짐에 따라 가족에 대한 의식도 조금씩 바뀌어 가정 내에서의 호칭과 지칭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존중과 배려의 태도가 확산되면서 ‘표준 화법 해설’(1992)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겨났습니다. 또 바르지 않은 경어 표현이 일반 국민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국민들의 국어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국립국어원에서는 전통적인 언어 예절과 규범을 계승하는 한편, 변화한 현실을 수용하여 보완된 표준 화법(언어 예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국민을 대상으로 언어 예절에 관한 국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1년 3월에는 국어학자, 언론계 인사 등 10명으로 표준 화법 보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1992년의 ‘표준 화법 해설’에서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을 논의하였습니다. 2011년 11월에는 표준 화법 보완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국립국어원은 11차에 걸친 표준 화법 보완을 위한 자문위원회와 공개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수렴하고, 2011년 12월에 국어심의회 보고를 거쳐 이제 ‘표준 언어 예절’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이 마련된 ‘표준 언어 예절’이 국민이 바르고 품격 있는 언어생활을 해 나가는 데에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간 우리말의 ‘표준 언어 예절’을 새로이 마련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훌륭한 의견을 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 12월 22일

국립국어원
원장 권재일

일 러 두 기

1. 이 책은 국립국어연구원이 펴낸 '표준 화법 해설'(1992)을 2009년, 2010년 전국 규모의 국어 사용 실태 조사와 2011년에 열린 열한 차례의 자문위원회, 국어심의회 보고(2011. 12. 19.)를 거쳐 수정, 보완한 것이다.
2. 표에 제시된 어형은 표준형이고, 쓸 수도 있다고 인정한 어형은 본문 설명에서 제시하였다.
3. 종결 어미는 대부분 상대방을 가장 높여 대접하는 '하십시오체'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므로 상대에 따라 종결 어미를 적절히 바꾸어 쓸 수 있다.
(예) 축하합니다. → 축하해요. 축하하오. 축하하네. 축하해. 축하한다.
4. 지칭어 앞에는 대명사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예) 어머니 → 우리 어머니, 저희 어머니 등
형부 → 네 형부
5. 지칭어의 대명사, 관형사는 바꾸어 쓸 수 있다.
(예) 그이 → 저이, 이이
6. 기호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 ① '○'는 고유 명사, 숫자 등을 표시한다.
(예) ○ 서방 — 성(姓)
○○○ 씨 — 성명(姓名)
○○○○ 년 — 숫자
 - ② ' / '으로 구분한 말은 앞뒤 어느 말이나 쓸 수 있음을 뜻한다.
(예) 할아버지/할머니 — 할아버지, 할머니
점심/밥 — 점심, 밥
 - ③ '[]' 안에 있는 말은 더 자세한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예) 만동서[남편 만형의 아내만] — '만동서'는 남편 만형의 아내를 지칭할 때만 씀을 뜻한다.

7. 이 책에서 예문을 들 때 큰따옴표(“ ”)를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 단어로 된 인사말을 비롯해 간결한 표현도 많아 작은따옴표(‘ ’)로 통일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8. ‘표준 화법 해설’(1992)과 달라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조부모, 손주, 사촌에 대한 호칭, 지칭을 추가하였다.
- ② 맨 뒤에 서식을 따로 설정하고 전자 우편, 결혼 청첩장, 결혼 축하에 대한 감사장, 조위에 대한 감사장을 여기에 새로 넣었다.
- ③ 부모 호칭으로 어릴 때에만 ‘엄마’, ‘아빠’를 쓰도록 하였던 것을 장성한 후에도 격식을 갖추지 않는 상황에서는 ‘엄마’, ‘아빠’를 쓸 수 있도록 하였다.
- ④ 남자가 여동생의 남편을 호칭하거나 지칭할 때 ‘매제’를 쓸 수 있도록 하였다.
- ⑤ 여자가 여동생의 남편을 호칭하거나 지칭할 때 ‘제부’를 쓸 수 있도록 하였다.
- ⑥ 남편의 형을 지칭하는 말로 ‘시숙(媿叔)’을 추가하였다.
- ⑦ 남편 누나의 남편을 호칭하거나 지칭할 때 ‘아주버님’, ‘서방님’을 쓸 수 있다고 하였던 것을 ‘아주버님’만 쓰도록 하였다.
- ⑧ 아내 오빠의 아내를 지칭하는 말, 아내 남동생의 아내를 호칭, 지칭하는 말로 ‘처남의 댁’만 있었던 것을 ‘처남댁’도 가능하다고 보아 추가하였다.
- ⑨ 직장에서윗사람에게는 ‘-시-’를 넣어 말하고 동료나 아래 직원에게는 ‘-사-’를 넣지 않고 말하도록 했던 것을 직급에 관계없이 ‘-시-’를 넣어 존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⑩ ‘축하드리다’가 불필요한 공대라 하여 ‘축하하다’로만 쓰도록 하였던 것을, ‘축하합니다’와 함께 높임을 더욱 분명히 드러낸 ‘축하드립니다’도 쓸 수 있는 표현으로 인정하였다.

표준 화법(표준 언어 예절) 보완 자문위원회

서정목(위원장), 강재형, 박재현, 이용원, 이창덕,
장경희, 채완, 최영진, 최호철, 한재영

차 례

머 리 말

일 러 두 기

표 차례

I. 가정에서의 호칭, 지칭

1. 부모와 자녀 사이.....	10
2.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18
3. 처부모와 사위 사이.....	25
4. 남편에 대하여.....	31
5. 아내에 대하여.....	36
6.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41
7. 남편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56
8.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65
9. 조부모와 손주 사이.....	75
10. 숙질 사이.....	88
11. 사촌에 대하여.....	108
12. 사돈 사이.....	113

II. 사회에서의 호칭, 지칭

13. 직장 사람들과 그 가족에 대하여.....	122
14. 지인에 대하여.....	133
15. 직원과 손님 사이.....	147

III. 경어법

16. 가정에서.....	152
17. 직장, 사회에서.....	157

IV. 일상생활의 인사말

18. 아침, 저녁의 인사말.....	162
19. 만나고 헤어질 때의 인사말.....	166
20. 전화 예절.....	174
21. 소개할 때.....	187

V. 특정한 때의 인사말

22. 연말연시.....	196
23. 생일 축하.....	200
24. 축하, 위로.....	205
25. 문상.....	211
26. 건배할 때.....	215

■ 서식

1 편지와 전자 우편.....	220
2 연하장.....	225
3 결혼 청첩장.....	227
4 결혼 축하.....	234
5 결혼 축하에 대한 감사장.....	238
6 부고.....	239
7 조위.....	242
8 조장과 조전.....	246
9 조위에 대한 감사장.....	248
10 기타(축하, 위로).....	249
- 생일 축하.....	249
- 출산 축하.....	252
- 정년 퇴임 축하.....	253
- 문병.....	253

■ 찾아보기.....255

표 차례

[표 I -1] 아버지에 대한 호칭, 지칭	12
[표 I -2] 어머니에 대한 호칭, 지칭	14
[표 I -3] 자녀에 대한 호칭, 지칭	17
[표 I -4] 시아버지에 대한 호칭, 지칭	20
[표 I -5] 시어머니에 대한 호칭, 지칭	21
[표 I -6] 며느리에 대한 호칭, 지칭	24
[표 I -7] 장인에 대한 호칭, 지칭	28
[표 I -8] 장모에 대한 호칭, 지칭	28
[표 I -9] 사위에 대한 호칭, 지칭	30
[표 I -10]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35
[표 I -11]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39
[표 I -12] 형에 대한 호칭, 지칭	42
[표 I -13] 형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43
[표 I -14] 남동생에 대한 호칭, 지칭 (남자)	44
[표 I -15] 남동생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남자)	45
[표 I -16] 누나에 대한 호칭, 지칭	46
[표 I -17] 누나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47
[표 I -18] 여동생에 대한 호칭, 지칭 (남자)	48
[표 I -19] 여동생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남자)	48
[표 I -20] 오빠에 대한 호칭, 지칭	49
[표 I -21] 오빠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50
[표 I -22] 남동생에 대한 호칭, 지칭 (여자)	51
[표 I -23] 남동생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여자)	52

[표 I -24] 언니에 대한 호칭, 지칭	53
[표 I -25] 언니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53
[표 I -26] 여동생에 대한 호칭, 지칭 (여자)	54
[표 I -27] 여동생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여자)	55
[표 I -28] 남편의 형에 대한 호칭, 지칭	58
[표 I -29] 남편 형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59
[표 I -30] 남편의 아우에 대한 호칭, 지칭	60
[표 I -31] 남편 아우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61
[표 I -32] 남편의 누나에 대한 호칭, 지칭	62
[표 I -33] 남편의 여동생에 대한 호칭, 지칭	63
[표 I -34] 시누이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64
[표 I -35] 아내의 남자 동기에 대한 호칭, 지칭	67
[표 I -36] 아내의 남동생을 아내의 동기에게 지칭할 때	68
[표 I -37] 아내 남자 동기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 지칭	70
[표 I -38] 아내의 여자 동기에 대한 호칭, 지칭	71
[표 I -39] 아내의 여동생을 아내의 동기에게 지칭할 때	72
[표 I -40] 아내 여자 동기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 지칭	74
[표 I -41] 조부모, 외조부모에 대한 호칭, 지칭	77
[표 I -42] 시조부에 대한 호칭, 지칭	78
[표 I -43] 시조모에 대한 호칭, 지칭	79

[표 I -44] 시외조부에 대한 호칭, 지칭.....	80
[표 I -45] 시외조모에 대한 호칭, 지칭.....	81
[표 I -46] 처조부에 대한 호칭, 지칭.....	82
[표 I -47] 처조모에 대한 호칭, 지칭.....	83
[표 I -48] 처외조부에 대한 호칭, 지칭.....	84
[표 I -49] 처외조모에 대한 호칭, 지칭.....	85
[표 I -50] 손주에 대한 호칭, 지칭.....	86
[표 I -51] 외손주에 대한 호칭, 지칭.....	87
[표 I -52] 아버지의 형에 대한 호칭, 지칭.....	90
[표 I -53] 아버지 형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91
[표 I -54] 아버지의 남동생에 대한 호칭, 지칭.....	93
[표 I -55] 아버지 남동생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94
[표 I -56] 아버지의 누이에 대한 호칭, 지칭.....	96
[표 I -57] 아버지 누이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97
[표 I -58] 어머니의 자매에 대한 호칭, 지칭.....	98
[표 I -59] 어머니 자매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99
[표 I -60] 어머니의 남자 형제에 대한 호칭, 지칭.....	100
[표 I -61] 어머니 남자 형제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101
[표 I -62] 남자 조카에 대한 호칭, 지칭.....	102
[표 I -63] 조카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104
[표 I -64] 여자 조카에 대한 호칭, 지칭.....	105

[표 I -65] 조카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107
[표 I -66] 아버지 동기의 자녀에 대한 호칭, 지칭.....	110
[표 I -67] 어머니 동기의 자녀에 대한 호칭, 지칭.....	112
[표 I -68] 자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호칭, 지칭.....	115
[표 I -69] 자녀 배우자의 삼촌 형렬에 대한 호칭, 지칭.....	117
[표 I -70] 동기 배우자의 동기 및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 지칭.....	118
[표 I -71] 자녀 배우자의 조부모 및 동기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호칭, 지칭.....	119
[표 I -72] 자녀 배우자의 동기와 그 자녀, 동기 배우자의 조카에 대한 호칭, 지칭.....	120
[표 II -1] 상사, 직급이 같은 동료, 아래 직원에 대한 호칭, 지칭.....	125
[표 II -2] 상사의 아내, 남편, 자녀에 대한 호칭, 지칭.....	128
[표 II -3] 동료나 아래 직원의 아내, 남편, 자녀에 대한 호칭, 지칭.....	131
[표 II -4] 친구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135
[표 II -5] 친구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137
[표 II -6] 남편의 친구에 대한 호칭, 지칭.....	138
[표 II -7] 아내의 친구에 대한 호칭, 지칭.....	139
[표 II -8] 아버지의 친구에 대한 호칭, 지칭.....	141

[표Ⅱ-9] 어머니의 친구에 대한 호칭, 지칭.....	142
[표Ⅱ-10] 친구의 아버지에 대한 호칭, 지칭.....	143
[표Ⅱ-11] 친구의 어머니에 대한 호칭, 지칭.....	144
[표Ⅱ-12] 남자 선생님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145
[표Ⅱ-13] 여자 선생님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146
[표Ⅱ-14] 식당, 상점, 회사, 관공서 등의 직원에 대한 호칭, 지칭.....	149
[표Ⅱ-15] 식당, 상점, 회사, 관공서 등의 손님에 대한 호칭, 지칭.....	149
[표Ⅲ-1] 경어 사용의 예 (가정).....	156
[표Ⅲ-2] 공손의 표현.....	160
[표Ⅳ-1] 아침 인사.....	165
[표Ⅳ-2] 저녁 인사.....	165
[표Ⅳ-3] 만나고 헤어질 때 하는 인사 (가정).....	168
[표Ⅳ-4] 손님과 만나고 헤어질 때 하는 인사.....	170
[표Ⅳ-5] 만나고 헤어질 때 하는 인사 (사회).....	173
[표Ⅳ-6] 전화를 받을 때 하는 말.....	176
[표Ⅳ-7] 전화를 바꾸어 줄 때 하는 말.....	176
[표Ⅳ-8] 상대방이 찾는 사람이 없을 때 하는 말	177
[표Ⅳ-9] 잘못 걸려 온 전화를 받을 때 하는 말	178
[표Ⅳ-10] 상대방이 응답하면 하는 말 (전화를 걸 때).....	179
[표Ⅳ-11] 친지에게 전화해서 자기를 밝힐 때 하는 말	181

[표Ⅳ-12] 직장에서 전화로 자기를 밝힐 때 하는 말	183
[표Ⅳ-13] 통화하려는 사람이 없을 때 하는 말 (전화를 걸 때).....	184
[표Ⅳ-14] 전화를 대신 걸 때 하는 말.....	185
[표Ⅳ-15] 전화가 잘못 걸렸을 때 하는 말 (전화를 걸 때).....	185
[표Ⅳ-16] 전화를 끊을 때 하는 말.....	186
[표Ⅳ-17] 자신을 소개하는 말.....	189
[표Ⅳ-18] 자신을 가족의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말.....	191
[표Ⅳ-19] 중간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의 순서	192
[표Ⅴ-1] 연말연시 인사말.....	199
[표Ⅴ-2] 특별한 생일(나이)의 이름.....	202
[표Ⅴ-3] 생일 축하 인사말.....	204
[표Ⅴ-4] 결혼 축하 인사말.....	206
[표Ⅴ-5] 출산 축하 인사말.....	207
[표Ⅴ-6] 문병할 때 하는 말.....	208
[표Ⅴ-7] 축하하거나 위로하는 말.....	210
[표Ⅴ-8] 문상 인사말.....	214
[표Ⅴ-9] 건배할 때 하는 말.....	217

가정에서의 호칭, 지칭

I

1. 부모와 자녀 사이

2.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3. 처부모와 사위 사이

4. 남편에 대하여

5. 아내에 대하여

6.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7. 남편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8.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9. 조부모와 손주 사이

10. 숙질 사이

11. 사촌에 대하여

12. 사돈 사이

1. 부모와 자녀 사이



부모에 대한 호칭, 지칭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은 부모님을 부르는 말이다.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높여 말하여야 할 분이 부모님이요, 가장 높고 부르고 싶은 것이 자식들의 마음인데 이 부모님을 올바르게 부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나의 부모님과 남의 부모님을 부르고 가리키는 말이 다르고,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와 돌아가셨을 때에 가리키는 표현이 다르다.

아버지에 대한 호칭, 지칭

아버지를 부르는 말은 ‘아버지’, ‘아빠’이다. 격식을 갖추어야 할 상황,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버지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는 ‘아버지’를 쓰는 것이 표준이다. 격식을 갖추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가리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빠’라고 할 수도 있다. 아버지에게 편지를 쓸 때는 ‘아버님’이 전통적인 말인데 ‘아버지’나 ‘아빠’를 써도 된다.

아버지를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 형제, 자매, 친척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과 동일하게 ‘아버지’, ‘아빠’로 지칭할 수 있다. 남편에게 지칭할 때는 ‘아버지’와 함께 ‘친정아버지’라고 하거나 ‘부산 아버지’처럼 친정의 지역 이름을 넣어 말하고, 시댁 쪽 사람에게는 ‘친정아버지’, ‘○○[지역] 아버지’, ‘○○[자녀] 외할아버지’로 지칭한다.

아내와 처가 쪽 사람에게는 ‘아버지’로 지칭한다. 그 밖의 사람에게 아버지를 지칭할 때도 ‘아버지’로 지칭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할아버지’로 가리킬 수 있다. 말하는 이가 여성이면 ‘아버지’, ‘친정아버지’, ‘○○[자녀] 외할아버지’로 지칭한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어머니와 조부모에게 지칭할 때는 살아 계실 때와 같이 ‘아버지’로 지칭하고, 그 외의 사람에게는 ‘아버님’으로 지칭하는데 ‘아버지’를 쓸 수도 있다. 살아 계신 아버지를 ‘선친(先親)’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남의 아버지를 ‘선친(先親)

I. 가정에서의 호칭, 지칭

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선친(先親)’은 나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남에게 지칭할 때 쓰는 말이다.

표 I-1 아버지에 대한 호칭, 지칭

	살아 계신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호칭	아버지, 아빠		
지칭	당사자에게	아버지, 아빠	
	어머니에게	아버지, 아빠	아버지
	조부모에게	아버지, 아빠	아버지
	형제, 자매, 친척에게	아버지, 아빠	아버님, 아버지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아버지, 친정아버지, ○○[지역] 아버지
		아내에게	아버지
	배우자 가족에게	시댁 쪽 사람에게	친정아버지, ○○[지역] 아버지, ○○[자녀] 외할아버지
		처가 쪽 사람에게	아버지
	그 밖의 사람에게	아들이	아버지, ○○[자녀] 할아버지
		딸이	아버지, 친정아버지, ○○[자녀] 외할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호칭, 지칭

나의 어머니를 부르는 말은 ‘어머니’, ‘엄마’이다. 격식을 갖추어야 할 상황,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머니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는 ‘어머니’를 쓰는 것이 표준이다.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어머니’라고 부르거나 가리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엄마’라고 할 수도 있다. 어머니에게 편지를 쓸 때는 ‘어머니’, ‘엄마’라고 쓸 수도 있지만 ‘-님’을 넣어 ‘어머님께 올립니다.’와 같이 ‘어머님’을 쓰는 것이 전통적인 표현이다.

어머니를 어머니, 아버지, 조부모, 형제, 자매, 친척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과 동일하게 ‘어머니’, ‘엄마’라고 한다. 어머니를 조부모에게 지칭할 때에 ‘어미’라고 지칭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에게 ‘어미’라고 할 수 있지만 손주는 자신의 어머니를 가리켜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 맞다.

남편에게 지칭할 때는 ‘어머니’, ‘엄마’와 함께 ‘친정어머니’라고 하거나 ‘부산 어머니’처럼 친정의 지역 이름을 넣어 말하고, 시댁 쪽 사람에게는 ‘친정어머니’, ‘○○[지역] 어머니’, ‘○○[자녀] 외할머니’로 지칭한다.

아내와 처가 쪽 사람에게는 ‘어머니’로 지칭한다. 그 밖의 사람에게 어머니를 지칭할 때는 ‘어머니’로 지칭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할머니’로 가리킬 수 있다. 말하는 이가 여성이면 ‘어머니’, ‘친정어머니’와 함께 ‘○○[자녀] 외할머니’로 지칭한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아버지와 조부모에게 지칭할 때는 살아 계실 때와 같이 ‘어머니’로 지칭하고, 그 외는 ‘어머님’ 또는 ‘어머니’, ‘엄마’를 쓴다. 전통적으로 그 밖의 사람에게는 ‘선비(先妣)’를 사용하기도 했다.

I. 가정에서의 호칭, 지칭

표 I-2 어머니에 대한 호칭, 지칭

	살아 계신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호칭	어머니, 엄마		
지칭	당사자에게	어머니, 엄마	
	아버지에게	어머니, 엄마	어머니
	조부모에게	어머니, 엄마	어머니
	형제, 자매, 친척에게	어머니, 엄마	어머님, 어머니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친정어머니, 어머니, 엄마, ○○[지역] 어머니	친정어머님, 친정어머니
		아내에게	어머님, 어머니
	배우자 가족에게	시댁 쪽 사람에게 친정어머니, ○○[지역] 어머니, ○○[자녀] 외할머니	친정어머님, 친정어머니, ○○[자녀] 외할머님, ○○[자녀] 외할머니
		처가 쪽 사람에게	어머님, 어머니
	그 밖의 사람에게	아들이 어머니, ○○[자녀] 할머니	어머님, 어머니, ○○[자녀] 할머님, ○○[자녀] 할머니
		딸이 어머니, 친정어머니, ○○[자녀] 외할머니	어머님, 어머니, 친정어머님, 친정어머니, ○○[자녀] 외할머님, ○○[자녀] 외할머니

자녀에 대한 호칭, 지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런 아들, 딸도 혼인하기 전과 혼인한 뒤의 호칭이 다르다. 아들이 혼인하기 전에는 ‘철수야’처럼 이름을 부른다. 그러나 혼인한 후에는 ‘아범’, ‘○○[손주] 아범’, ‘아비’, ‘○○[손주] 아비’ 또는 ‘○○[이름]’으로 부른다. 아이를 낳으면 ‘아범’, ‘아비’라고 부르거나 손주의 이름을 넣어 ‘○○[손주] 아범’, ‘○○[손주] 아비’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주가 곁에 있는 상황에서는 아들을 손주 앞에서 존중하기 위해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좋다. 손주가 곁에 없는 상황에서는 아들 이름, 서열(‘첫째’, ‘둘째’, ‘막내’ 등)로 부른다. 아들이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열로 부르거나 직함으로도 부를 수 있다.(지칭도 동일하다.)

혼인하지 않은 아들을 가족과 친척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인 ‘○○[이름]’을 그대로 쓰고, 지칭하는 아들보다 아랫사람에게는 그들이 부르는 말인 ‘형’, ‘오빠’, ‘삼촌’ 등으로 가리킨다. 아들의 직장 사람들에게는 ‘○○○ 씨’ 또는 성이나 성명에 직함을 붙여 ‘○ 과장’, ‘○○○ 과장’, ‘○ 과장님’, ‘○○○ 과장님’으로 지칭하고, 그 밖의 사람에게는 ‘○○[이름]’, ‘아들’로 지칭한다.

혼인한 아들을 가족과 친척에게는 ‘아범’, ‘아비’, ‘○○[이름]’과 손주의 이름을 넣어 ‘○○[손주] 아범’, ‘○○[손주] 아비’로 지칭하고, 지칭하는 아들보다 아랫사람에게는 그들이 부르는 말을 지칭으로 한다. 아들의 처부모와 손위 처남 등에게는 ‘○○[손주] 아범’, ‘○○[손주] 아비’로 지칭하는데 손주를 보기 전에는 ‘○○[이름]’으로 지칭할 수 있다. 아들 처가의 손아래 동기에게는 ‘○○[손주] 아범’, ‘○○[손주] 아비’와 그들이 부르는 말을 지칭으로 쓸 수 있다. 아들의 직장 사람들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혼인하기 전의 지칭과 같은 말을 쓴다.

간혹 아들의 직함이나 학위인 ‘군수’, ‘박사’ 등으로 부르고 지칭하는 경우가 있다. 조선조에도 공식에서는 당상관 이상의 아들을 직함으로 호칭, 지칭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나이가 들고 사회적으로 존경할 만한 위치에 있으면 오늘날도 가능한 방법이

긴 하지만 자랑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상대방에 따라 적당히 가려 써야 한다.

딸도 혼인하기 전에는 이름을 부르고 혼인한 뒤에는 외손주에 기대어 ‘어멈’, ‘○○[외손주] 어멈’, ‘어미’, ‘○○[외손주] 어미’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손주가 곁에 없는 상황에서는 ‘○○[이름]’이나 서열(‘첫째’, ‘둘째’, ‘막내’ 등) 또는 직함으로 부른다.(지칭도 이와 동일하다.) 딸의 지칭도 아들의 경우와 같이 상황에 따라 ‘어멈’, ‘○○[외손주] 어멈’, ‘어미’, ‘○○[외손주] 어미’를 쓰고 사돈 쪽 손아래 동기에게는 그들이 부르는 말을 쓸 수도 있다.

표 I-3 자녀에 대한 호칭, 지칭

	혼인하지 않은 자녀		혼인한 자녀
호칭	○○[이름]		아범, ○○[손주] 아범, 아비, ○○[손주] 아비, 어멈, ○○[외손주] 어멈, 어미, ○○[외손주] 어미, ○○[이름]
지칭	당사자에게	○○[이름]	아범, ○○[손주] 아범, 아비, ○○[손주] 아비, 어멈, ○○[외손주] 어멈, 어미, ○○[외손주] 어미, ○○[이름]
	가족, 친척에게	○○[이름]	아범, ○○[손주] 아범, 아비, ○○[손주] 아비, 어멈, ○○[외손주] 어멈, 어미, ○○[외손주] 어미, ○○[이름]
	자녀의 직장 사람들에게	○○○ 씨, ○ 과장, ○○○ 과장, ○ 과장님, ○○○ 과장님	
	그 밖의 사람에게	○○[이름], 아들, 딸	
	손주 (해당 자녀의 자녀)에게		아버지, 아빠, 아범, 아비, 어머니, 엄마, 어멈, 어미
	사돈 쪽 사람에게		아범, ○○[손주] 아범, 아비, ○○[손주] 아비, 어멈, ○○[외손주] 어멈, 어미, ○○[외손주] 어미, ○○[이름]

2.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



시부모에 대한 호칭, 지칭

요즈음은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하는 시아버지도 많고 시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생각하는 며느리도 흔하다. 이러한 마음은 호칭에도 나타나서 시아버지를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실제로 시아버지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버님’처럼 ‘-님’자를 붙여 부르면 거리감이 있으므로 ‘아버지’로 불리기를 원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경칭인 ‘아버님’을 시아버지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했고, 지금도 시아버지는 예의를 갖추어 불려야 할 대상이므로 ‘아버님’이 시아버지를 부르는 바른 호칭이다.

시아버지에 대한 호칭, 지칭

시아버지에 대한 지칭은 몇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시아버지를 시부모에게 가리켜 말할 때는 호칭과 마찬가지로 ‘아버님’이 바른 지칭이다. 시조부모에게 시아버지를 가리킬 때도 ‘아버님’, ‘아버지’로 지칭한다. 시아버지를 시조부모에게 지칭할 때는 ‘아비’처럼 낮추는 것이 전통이었다. 그러나 ‘아비’라고 지칭하는 것은 현실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시아버지를 부르는 말인 ‘아버님’으로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버님’이라 하는 것이 원칙이되 ‘아버지’도 가능하다. 남편과 남편 동기 및 그 배우자에게도 ‘아버님’을 쓴다.

자녀에게 시아버지를 가리킬 때는 자녀의 위치에 서서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경칭인 ‘할아버님’도 쓸 수 있다.

시댁 친척에게 시아버지를 지칭하는 말은 ‘아버님’이다. 물론 나이가 어린 친척에게는 그들이 부르는 말로 지칭할 수 있다.

친정 쪽 사람에게는 ‘시-’를 붙인 ‘시아버님’, ‘시아버지’와 자녀의 이름에 기댄 ‘○[자녀] 할아버지’, ‘○○[자녀] 할아버님’을 지칭으로 쓰는 것이 좋다. 현실적으로 ‘시

아버지'를 많이 쓰니까 '시아버님'은 빼고 '시아버지'만 하자는 주장과 전통 예절에 따라 '-님'을 넣은 '시아버님'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현실과 전통을 다 존중하기로 한 것이다.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 '시-'를 넣느냐 넣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시-'를 넣지 않아도 '아버님'이라고 하면 '아버지'로 지칭되는 친정아버지와 구분할 수 있다는 주장과 타인에게 어느 쪽 아버지인지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 '시-'를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다. 이때는 '시아버님', '시아버지', '아버님' 가운데 하나를 골라 쓰면 된다. 가까운 친구나 잘 아는 이웃에게는 '○○[자녀] 할아버지', '○○[자녀] 할아버님'으로 지칭할 수도 있다.

표 I-4 시아버지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아버님
지 칭	당사자에게	아버님
	시어머니에게	아버님
	시조부모에게	아버님, 아버지
	남편에게	아버님
	남편의 동기에게	아버님
	남편 동기의 배우자에게	아버님
	자녀에게	할아버지, 할아버님
	시댁 친척에게	아버님
	친정 쪽 사람에게	시아버님, 시아버지, ○○[자녀] 할아버지, ○○[자녀] 할아버님
	그 밖의 사람에게	시아버님, 시아버지, 아버님, ○○[자녀] 할아버지, ○○[자녀] 할아버님

시어머니에 대한 호칭, 지칭

시어머니를 부르는 말은 ‘어머님’과 ‘어머니’ 두 가지 다 쓸 수 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시아버지보다는 친근한 대상이다. 전통적으로 시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의 경칭인 ‘어머님’을 호칭으로 사용해왔지만 현실적으로 ‘어머니’로 호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정이 배인 ‘어머니’라는 호칭이 예의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시어머니에 대한 지칭도 몇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시어머니 본인을 지칭할 때와 시어머니를 시아버지나 시조부모에게 지칭할 때에는 ‘어머님’, ‘어머니’로 지칭한다. 남편, 남편의 동기 및 그 배우자에게 시어머니를 지칭하는 말은 ‘어머님’이다. 자녀에게 시어머니를 가리킬 때는 ‘할머니’, ‘할머님’으로 지칭한다. 시댁 친척에게는 ‘어머님’이라 지칭하며, 친정 쪽 사람과 그 밖의 사람에게 시어머니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시어머님’, ‘시어머니’, ‘○○[자녀] 할머니’, ‘○○[자녀] 할머님’으로 쓴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시어머니를 ‘어머님’이라고도 지칭할 수 있다.

표 I-5 시어머니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어머님, 어머니
지 칭	당사자에게	어머님, 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어머님, 어머니
	시조부모에게	어머님, 어머니
	남편에게	어머님
	남편의 동기에게	어머님
	남편 동기의 배우자에게	어머님
	자녀에게	할머니, 할머님

I. 가정에서의 호칭, 지칭

지 칭	시댁 친척에게	어머님
	친정 쪽 사람에게	시아머님, 시어머니, ○○[자녀] 할머니, ○○[자녀] 할머니
	그 밖의 사람에게	시아머님, 시어머니, 어머님, ○○[자녀] 할머니, ○○[자녀] 할머니

며느리에 대한 호칭, 지칭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르는 말은 ‘어멈’, ‘○○[손주] 어멈’, ‘어미’, ‘○○[손주] 어미’, ‘아가’, ‘새아가’가 표준이다. 집안에 따라서는 며느리를 ‘새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젊은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특정한 가정이나 지역의 말은 참고할 수는 있으나 보편성이 없기 때문에 표준 언어 예절로 볼 수는 없다.

며느리를 지칭하는 말도 상황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해당 며느리에게는 ‘어멈’, ‘○○[손주] 어멈’, ‘어미’, ‘○○[손주] 어미’, ‘아가’, ‘새아가’로 가리킨다. 시부모가 며느리와 친밀할 경우에 ‘너’라고 부르는 일도 있지만, ‘너’는 며느리를 가벼이 대하는 느낌이 있으므로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에게는 며느리를 ‘며늘애’, ‘어멈’, ‘○○[손주] 어멈’, ‘어미’, ‘○○[손주] 어미’, ‘○○[아들] 처’로 지칭하고, 배우자에게는 ‘며늘애’, ‘새아가’, ‘어멈’, ‘어미’와 손주의 이름을 넣은 ‘○○[손주] 어멈’, ‘○○[손주] 어미’, 아들의 이름을 넣은 ‘○○[아들] 댁’, ‘○○[아들] 처’로 지칭한다. ‘며느리’는 남의 며느리를 지칭하는 느낌도 있고 어른 앞에서 며느리를 낮추는 것이 예의이기도 하므로 ‘며느리’보다는 ‘며늘애’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의 남편인 아들에게는 ‘어멈’, ‘○○[손주] 어멈’, ‘어미’, ‘○○[손주] 어미’, ‘네 댁’, ‘네 처’ 등을 쓴다. 아들에게 동생의 아내를 지칭할 때는 ‘○○[손주] 어멈’,

‘○○[손주] 어미’, ‘○○[아들] 댁’, ‘○○[아들] 처’, ‘제수’, ‘계수’ 등을 쓴다. 또한 아들에게 형의 아내를 지칭할 때는 ‘○○[손주] 어멈’, ‘○○[손주] 어미’, ‘형수’를 쓴다.

딸에게 남동생의 아내를 지칭할 때는 ‘○○[손주] 어멈’, ‘○○[손주] 어미’, ‘올케’, ‘○○[아들] 댁’, ‘○○[아들] 처’를 쓴다. 딸에게 오빠의 아내를 지칭할 때는 ‘○○[손주] 어멈’, ‘○○[손주] 어미’, ‘올케’, ‘새언니’를 쓴다.

자녀에게 그들의 형이나 오빠의 부인을 ‘○○[형이나 오빠] 댁’, ‘○○[형이나 오빠] 처’로 가리키지 않는 것은 남동생이나 여동생에게 형이나 오빠의 이름을 대면 그 형이나 오빠 그리고 그 부인을 대접하지 않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며느리를 다른 며느리에게 가리킬 때는 ‘○○[손주] 어멈’, ‘○○[손주] 어미’, ‘형’, ‘동서’를 쓴다. 사위에게 가리킬 때는 ‘처남의 댁’, ‘처남댁’, ‘○○[손주] 어멈’, ‘○○[손주] 어미’, ‘○○[아들] 댁’, ‘○○[아들] 처’를 쓸 수 있다.

손주에게 며느리를 가리킬 때는 ‘어머니’, ‘엄마’가 원칙이되, ‘어미’로 지칭하는 것도 가능하다. 친척에게 며느리를 지칭할 때는 ‘며느리’, ‘며늘애’, ‘○○[아들] 댁’, ‘○○[아들] 처’, ‘○○[손주] 어멈’, ‘○○[손주] 어미’로 지칭한다. 친척 중 외사람에게는 ‘며늘애’가 가능하지만 아랫사람에게는 ‘며늘애’보다는 ‘며느리’가 적당하다. 물론 나이 어린 친척에게는 ‘아주머니’와 같이 그들이 부르는 말로 지칭할 수도 있다.

며느리의 친부모인 사돈에게는 ‘며늘애’, ‘○○[손주] 어멈’, ‘○○[손주] 어미’로 지칭한다. 아이가 없을 때는 ‘며늘애’, 아이가 있을 때는 ‘며늘애’와 함께 ‘○○[손주] 어멈’, ‘○○[손주] 어미’로 지칭하는 것이 좋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며느리’, ‘새아기’로 지칭한다. ‘아기’는 손주를 지칭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표 I-6 며느리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어멈, ○○[손주] 어멈, 어미, ○○[손주] 어미, 아가, 새아가
지 칭	당사자에게	어멈, ○○[손주] 어멈, 어미, ○○[손주] 어미, 아기, 새아기
	부모에게	며늘애, 어멈, ○○[손주] 어멈, 어미, ○○[손주] 어미, ○○[아들] 처
	배우자에게	며늘애, 새아기, 어멈, ○○[손주] 어멈, 어미, ○○[손주] 어미, ○○[아들] 댁, ○○[아들] 처
	당사자 남편인 아들에게	어멈, ○○[손주] 어멈, 어미, ○○[손주] 어미, 네 댁, 네 처
	아들에게 동생의 아내를	○○[손주] 어멈, ○○[손주] 어미, ○○[아들] 댁, ○○[아들] 처, 제수, 계수
	아들에게 형의 아내를	○○[손주] 어멈, ○○[손주] 어미, 형수
	딸에게 남동생의 아내를	○○[손주] 어멈, ○○[손주] 어미, 올케, ○○[아들] 댁, ○○[아들] 처
	딸에게 오빠의 아내를	○○[손주] 어멈, ○○[손주] 어미, 올케, 새언니
	다른 며느리에게	○○[손주] 어멈, ○○[손주] 어미, 형, 동서
	사위에게	처남의 댁, 처남댁, ○○[손주] 어멈, ○○[손주] 어미, ○○[아들] 댁, ○○[아들] 처
	손주에게	어머니, 엄마, 어미
	친척에게	며느리, 며늘애, ○○[아들] 댁, ○○[아들] 처, ○○[손주] 어멈, ○○[손주] 어미
	사돈에게	며늘애, ○○[손주] 어멈, ○○[손주] 어미
	그 밖의 사람에게	며느리, 새아기

3. 처부모와 사위 사이



처부모에 대한 호칭, 지칭

아내의 부모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역시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세태가 바뀌어 요즘은 사위를 친 자식처럼 생각하는 처부모도 많고, 사위 쪽에서도 처가 쪽 출입이 옛날보다 현저하게 잦아진 것이 현실이다.

처부모 호칭에 대해서도 지역 간, 세대 간의 차이가 있다. 연세 드신 분 가운데 친부모를 일찍 여윈 어떤 분은 ‘아버님’, ‘어머님’ 하는 것이 훨씬 친근하게 느껴져서 이미 30년 전 결혼할 때부터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으로 불렀다고 한다. 또 이북 출신인 연로한 어떤 분은 자신이 장인을 ‘아버님’이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결혼한 아들이 처부모를 ‘아버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중부 지방 출신의 어떤 연세 드신 분은 ‘아버님’, ‘어머님’ 또는 ‘아버지’, ‘어머니’는 자신을 낳아 준 부모 외에는 쓸 수 없는 말이므로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으로 부르는 것은 인륜을 무시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자가 시집을 가서 며느리가 되면 시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하는데 사위도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못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에 널리 퍼진 생각이고, 또 실제로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 나아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친구의 부모에게까지도 ‘아버님’, ‘어머님’ 하는 것이 널리 퍼진 현실에 비추어 처부모에게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못 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처부모를 부를 때는 친부모에게처럼 ‘아버지’, ‘어머니’ 하는 것은 곤란하나 ‘장인어른’, ‘장모님’이 원칙이되 ‘아버님’, ‘어머님’도 쓸 수 있다.

한편 자신의 장인, 장모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 ‘빙장어른’, ‘빙모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 말은 원래 다른 사람의 처부모를 높여 가리킬 때 쓰는 말이므로 자신의 처부모를 부르거나 가리킬 때에는 쓸 수 없는 말이다.

아내에게 처부모를 가리킬 때는 ‘장인어른’, ‘아버님’, ‘장인’과 ‘장모님’, ‘어머님’,

‘장모’로 지칭한다. ‘○○[자녀] 외할아버지’, ‘○○[자녀] 외할머니’는 간접 호칭이므로 아내에게 지칭하는 말로 권장할 만하지 않다.

친부모와 동기, 친척에게 처부모를 가리킬 때는 ‘장인’, ‘장모’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처부모의 나이가 친부모보다 훨씬 많거나 그 밖에 처부모를 대접해서 말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자녀에 기대어 ‘○○[자녀] 외할아버지’, ‘○○[자녀] 외할머니’라고 해도 된다. 그러나 친부모 등 자기 쪽 사람에게 처부모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들에게는 ‘장인어른’, ‘장모님’, ‘아버님’, ‘어머님’으로 지칭한다. 아내의 동기들이 부르는 대로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신의 자녀에 기대어 ‘○○[자녀] 외할아버지’, ‘○○[자녀] 외할머니’라고 하는 것은 모두 간접 호칭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자녀에게 처부모를 지칭할 경우는 그들이 부르는 대로 ‘외할아버지’, ‘외할아버님’, ‘외할머니’, ‘외할머님’으로 지칭한다.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장인’, ‘장모’라고 할 수 있고, 처부모를 높여서 말할 때에는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상대가 말하는 사람의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이라면 ‘○○[자녀] 외할아버지’, ‘○○[자녀] 외할아버님’, ‘○○[자녀] 외할머니’, ‘○○[자녀] 외할머님’이라고 해도 된다.

I. 가정에서의 호칭, 지칭

표 I-7 장인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장인어른, 아버님
지 칭	당사자에게	장인어른, 아버님
	장모에게	장인어른, 아버님
	아내에게	장인어른, 아버님, 장인
	부모와 동기, 친척에게	장인, 장인어른, ○○[자녀] 외할아버지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장인어른, 아버님
	자녀에게	외할아버지, 외할아버님
	그 밖의 사람에게	장인, 장인어른, ○○[자녀] 외할아버지, ○○[자녀] 외할아버님

표 I-8 장모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장모님, 어머님
지 칭	당사자에게	장모님, 어머님
	장인에게	장모님, 어머님
	아내에게	장모님, 어머님, 장모
	부모와 동기, 친척에게	장모, 장모님, ○○[자녀] 외할머니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장모님, 어머님
	자녀에게	외할머니, 외할머님
	그 밖의 사람에게	장모, 장모님, ○○[자녀] 외할머니, ○○[자녀] 외할머님

사위에 대한 호칭, 지칭

사위를 부르는 말도 사위가 처부모를 부를 때와 마찬가지로 세대 간, 지역 간의 차이가 크다. 대체로 북부 지방에서는 사위의 이름을 부르는 데 반하여 중부와 남부 지방에서는 ‘○ 서방’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부 지방에서도 장모가 사위를 어려워하여 어떻게 부르지 못하고 어물어물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 사위의 이름을 부르거나 ‘○ 군’하는 이들도 있다.

처부모가 사위를 부르는 말은 ‘○ 서방’, ‘○○[외손주] 아빤’, ‘○○[외손주] 아비’, ‘여보게’이다.

당사자에게는 ‘○ 서방’, ‘자네’, ‘○○[외손주] 아빤’, ‘○○[외손주] 아비’로 가리킨다. 부모에게 내 사위를 가리키거나 딸에게 그 남편인 사위를 지칭할 경우에는 ‘○ 서방’, ‘○○[외손주] 아빤’, ‘○○[외손주] 아비’로 지칭한다. 딸에게 ‘네 남편’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사위를 마치 남 가리키는 듯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외손주] 아빤’도 같은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

배우자에게 또는 사위의 부모인 사돈에게 사위를 지칭할 경우에는 ‘○ 서방’, ‘○○[외손주] 아빤’, ‘○○[외손주] 아비’로 지칭한다.

사위를 아들에게 지칭할 때는 ‘○ 서방’, ‘매형’, ‘자형’, ‘매부’, ‘매제’로 지칭한다. 당사자의 아내가 아닌 다른 딸, 즉 사위의 처형이나 처제에게 사위를 지칭할 경우에는 ‘○ 서방’으로 지칭한다. 사위를 그 처제에게 지칭할 때는 ‘형부’, 그 처형에게 지칭할 때는 ‘제부’라고도 할 수 있다.

며느리와 다른 사위들에게는 ‘○ 서방’으로 지칭한다. 다른 사위들에게는 ‘동서’라고 하는 말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자연스러운 지칭이 아니다.

외손주에게는 그들이 부르는 대로 ‘아버지’, ‘아빠’로 지칭한다. 그 밖의 사람에게 사위를 가리킬 경우에 이쪽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이에게는 ‘사위’ 외에 ‘○ 서방’, ‘○○[외손주] 아버지’, ‘○○[외손주] 아빤’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위’로 쓰는 것이 좋다.

표 I-9 사위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 서방, ○○[외손주] 아범, ○○[외손주] 아비, 여보게
지 칭	당사자에게	○ 서방, 자네, ○○[외손주] 아범, ○○[외손주] 아비
	부모에게	○ 서방, ○○[외손주] 아범, ○○[외손주] 아비
	당사자의 아내인 딸에게	○ 서방, ○○[외손주] 아범, ○○[외손주] 아비
	배우자에게	○ 서방, ○○[외손주] 아범, ○○[외손주] 아비
	사돈에게	○ 서방, ○○[외손주] 아범, ○○[외손주] 아비
	아들에게	○ 서방, 매형, 자형, 매부, 매제
	당사자의 아내가 아닌 다른 딸에게	○ 서방, 형부, 제부
	며느리에게	○ 서방
	다른 사위에게	○ 서방
	외손주에게	아버지, 아빠
	그 밖의 사람에게	사위, ○ 서방, ○○[외손주] 아버지, ○○[외손주] 아빠

4. 남편에 대하여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은 현실성이 없는 어형은 배제하고 언어 변화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한편, 현실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그릇된 것 또한 배제한다.

결혼한 기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남편을 부를 때는 ‘여보’를 쓴다. 그러나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 ‘여보’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 인정했던 ‘여봐요’는 오늘날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신혼 초 ‘여보’라는 말이 어색할 경우 ‘○○ 씨’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 씨’의 ‘씨’가 영어의 미스터를 그냥 번역한 느낌이고, ‘○○ 씨’라고 하면 부부간의 정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사무적인 인상을 풍기기 때문에 신혼 초에는 쓸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쓰지 않는 것이 좋다. 결혼 전의 호칭을 그대로 결혼 후에도 사용하여 ‘형’, ‘오빠’, ‘아저씨’라고 하는 것은 어법에 맞지 않으므로 써서는 안 된다. 남편 호칭의 또 다른 한 문제는 ‘자기’이다. 요즘 젊은 신혼 부부들, 특히 연애결혼을 한 부부들은 흔히 서로를 ‘자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자기야’는 안 되더라도 ‘자기’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으나 역시 바람직하지 않은 말이다.

자녀가 있는 젊은 부인들은 남편을 ‘여보’라고 부르거나 아이에 기대어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빠’라고만 부르는 것은 자신의 친정아버지를 부르는 것인지 남편을 부르는 것인지 혼란스러우므로 써서는 안 된다. 장년층이나 노년층에서는 ‘○○[자녀] 아버지’, ‘영감’, ‘○○[손주, 외손주] 할아버지’라 할 수도 있다.

남편을 지칭하는 말은 누구와 대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남편과 이야기하면서 남편을 지칭하는 경우는 물론 ‘당신’이다. 신혼 초에는 ‘○○ 씨’, 나이가 들어서는 ‘영감’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 아버지’, ‘○○[손주, 외손주] 할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 호칭과 마찬가지로 지칭에서도 남편을 ‘자기’라 지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부모에게 남편을 지칭할 경우에는 ‘아범’, ‘아비’로 써야 한다. 그러나 아이가 없을 때에는 ‘그이’로 지칭할 수 있다. 시부모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 ‘개’라는 말이 전통적으로 쓰이기는 하였지만 현실성이 없으므로 오늘날에는 권장할 만하지 않다.

친정 부모에게는 전통적으로 ‘오 서방’이었고 현대에도 그대로 쓰는 것이 옳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아범’, ‘아비’로 할 수도 있다.

남편을 남편의 동기에게 지칭할 때는 ‘그이’,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로 가리킨다. 남편의 손아래 동기에게 남편을 가리킬 때 시동생에게는 ‘형’, ‘형님’, 시누이에게는 ‘오빠’로 쓸 수도 있다.

남편 동기의 배우자에게 남편을 지칭할 때에는 ‘그이’,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로 쓴다.

친정의 손위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는 남편을 ‘오 서방’, ‘그이’,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로 지칭한다. 친정의 손아래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는 ‘그이’,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로 쓸 수도 있고 남동생에게는 ‘매형’, ‘자형’, ‘매부’, 여동생에게는 ‘형부’로 쓸 수 있다.

자녀에게는 그들이 부르는 대로 ‘아버지’ 또는 ‘아빠’라고 하는 것이 좋고, 며느리에게는 ‘아버님’, 사위에게는 ‘장인’, ‘장인어른’, ‘아버님’이라고 한다.

자신의 친구들에게는 남편을 가리켜 ‘그이’, ‘남편’, ‘애아버지’, ‘애 아빠’,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로 쓸 수 있다. 그런데 신혼 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친구에게 남편을 가리켜 ‘신랑’이라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언어 현실이고 또한 이를 허용하자는 의견도 많다. 그러나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남편의 직함을 붙여 ‘우리 과장’, ‘우리 부장’ 등으로 지칭해서는 안 된다.

남편의 친구들에게는 ‘그이’, ‘애아버지’, ‘애 아빠’, ‘바깥양반’, ‘바깥사람’으로 쓰는데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도 허용한다. 남편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 남편을 바꾸어 달라고 할 때는 ‘○○○ 씨’와 ‘과장님’, ‘오 과장님’, ‘○○○ 과장님’과 같이 성(姓)과 직함 또는 성명과 직함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거기



I. 가정에서의 호칭, 지칭

에 ‘님’을 붙일 수도 있다.

아는 사람에게 남편을 가리킬 때에는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 ‘바깥 양반’, ‘바깥사람’을 쓰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남편’, ‘애아버지’, ‘애 아빠’를 쓴다.

표 I-10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여보, ○○ 씨,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 영감, ○○[손주, 외손주] 할아버지	
지 칭	당사자에게	당신, ○○ 씨, 영감	
	시부모에게	아범, 아비, 그이	
	친정 부모에게	○ 서방, 아범, 아비	
	남편 동기에게	그이,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 형, 형님, 동생, 오빠	
	남편 동기의 배우자에게	그이,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	
	친정 동기와 배우자 에게	손위 동기에게	○ 서방, 그이,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
		손위 동기의 배우자에게	○ 서방, 그이,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
		손아래 동기에게	그이,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 매형, 자형, 매부, 형부
		손아래 동기의 배우자에게	그이,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
	자녀에게	아버지, 아빠	
	며느리에게	아버님	
	사위에게	장인, 장인어른, 아버님	
	친구에게	그이, 남편, 애아버지, 애 아빠,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	
	남편 친구에게	그이, 애아버지, 애 아빠,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 바깥양반, 바깥사람	
	남편 회사에 전화를 걸 때	○○○ 씨,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아는 사람에게	○○[자녀] 아버지, ○○[자녀] 아빠, 바깥양반, 바깥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남편, 애아버지, 애 아빠		

5. 아내에 대하여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연령에 관계없이 아내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은 ‘여보’이지만 신혼 초에는 결혼 전의 습관을 갑자기 버리기 어려우므로 신혼 초에 한하여 ‘○○ 씨’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표준 화법 해설’(1992)에서 ‘여보’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 인정했던 ‘여봐요’는 현실적으로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아이가 있을 때는 ‘여보’ 외에 ‘○○[자녀] 엄마’를 쓸 수 있다. 오늘날 아내를 ‘○○[자녀] 어머니’라고 부르는 남편은 거의 없기 때문에 ‘○○[자녀] 엄마’만 두고 ‘○○[자녀] 어머니’는 제외한다. 장년과 노년에 들어서는 ‘여보’, ‘○○[자녀] 엄마’와 ‘임자’ 그리고 손주에 기대어 ‘○○[손주, 외손주]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가능하다. 이 밖에 아내를 ‘부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으나 일반적인 호칭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한다. ‘마누라’는 아내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므로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아내를 지칭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당신’이다. 그러나 호칭에서와 마찬가지로 신혼 초 ‘당신’이란 말이 잘 나오지 않을 때에 결혼 전의 습관대로 ‘○○ 씨’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외에 장년과 노년에는 ‘임자’를 써도 좋다. 젊은 부부 사이에서 아내를 ‘자기’라 지칭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말이다.

친부모에게 아내를 지칭하는 말은 ‘어멈’, ‘어미’, ‘집사람’, ‘안사람’, ‘○○[자녀] 엄마’이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집사람’, ‘안사람’을 쓴다. 아내를 신혼 초에 부모에게 지칭할 때는 어른 앞에서 조심해야 하므로 ‘○○ 씨’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처’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나 부모에게 자기 아내를 가리켜 ‘처’라고 하는 것은 거리감이 느껴지므로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개’라고 하거나 ‘영희가 그랬어요.’ 처럼 이름을 그대로 말하는 것은 요즘 젊은이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으나 아내를 무시하는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장인, 장모에게 아내를 가리킬 때는 ‘어멈’, ‘어미’, ‘○○[자녀] 엄마’, ‘집사람’, ‘안사람’으로 지칭한다.

동기와 동기의 배우자(형수, 제수, 매형, 매제)에게 아내를 가리킬 때는 ‘○○[자녀] 엄

마’를 쓴다. 손아래인 남동생과 여동생에게는 ‘○○[자녀] 엄마’와 함께 각기 동생의 처지에 서서 ‘형수’와 ‘언니’, ‘새언니’, ‘올케’, ‘올케언니’로 지칭한다. 손위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는 ‘집사람’, ‘안사람’이라고 쓸 수도 있다. ‘집사람’, ‘안사람’은 윗사람이나 남에게 아내를 지칭할 때 겸양의 표현으로 쓴다. 손아래 동기에게는 ‘집사람’, ‘안사람’이라고 지칭하면 아내를 낮추는 의미가 되므로 손아래 동기의 처지에서 부르는 말로 지칭하는 것이 옳바르다. 또 ‘처’는 주로 친인척이 아닌 사람에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내를 지칭할 때 자연스럽다. 가정 내 동기 사이에서 ‘처’를 사용하면 남처럼 느껴질 수 있고 어색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아내의 손위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아내를 가리킬 때도 역시 ‘○○[자녀] 엄마’, ‘집사람’, ‘안사람’을 쓰는 것이 좋다. 친형제, 자매에게 말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내의 손아래 동기인 처남과 처제에게는 그들의 처지에 서서 ‘누나’, ‘언니’라 지칭한다. 자녀에게 아내를 가리켜 말할 때는 ‘어머니’, ‘엄마’이다. 물론 그 앞에 ‘너의’, ‘너희’를 엮을 수도 있다.

며느리에게 아내를 지칭할 때는 ‘어머니’이다. 며느리에게 남편을 가리켜 말할 때 ‘아버님’이라고 하므로 아내를 가리켜 말할 때 ‘어머님’이라고 해야 균형이 맞다는 의견도 있으나 현실 언어가 남편은 ‘아버님’이라고 말하지만 아내는 ‘어머님’이라고 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머니’만을 인정하였다. 또 ‘시어머니’라고 지칭하는 것 역시 일반적인 쓰임이 아니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사위에게는 ‘장모’라고 지칭한다.

친구에게 아내를 지칭할 때나 아내의 친구에게 아내를 지칭할 때에는 ‘집사람’, ‘안사람’, ‘애어머니’, ‘애 엄마’, ‘○○[자녀] 엄마’로 쓴다. ‘마누라’는 아내를 하대하는 느낌이 들고 ‘안식구’, ‘내자’는 오늘날 거의 쓰이지 않고 앞으로 더욱 쓰이지 않을 말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아내 회사에 전화를 걸어 아내를 지칭할 때에는 ‘○○○ 씨’,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을 쓴다. 아는 사람에게는 ‘집사람’, ‘안사람’, ‘아내’, ‘처’뿐만 아니라 자녀 이름에 기대어 ‘○○[자녀] 엄마’, ‘○○[자녀] 어머니’도 쓸 수 있다. 모르는 사람에게 아내를 가리킬 때는 ‘집사람’, ‘안사람’, ‘아내’, ‘처’, ‘애어머니’, ‘애 엄마’로

나타낸다.

오늘날 젊은 층에서 남들에게 아내를 가리켜 ‘와이프’라고 말하는 풍조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고유한 우리말을 두고 외국어를 당연한 것처럼 쓰는 풍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표 I-11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여보, ○○ 씨, ○○[자녀] 엄마, 임자, ○○[손주, 외손주] 할머니	
지 칭	당사자에게		당신, ○○ 씨, 임자
	친부모에게		어멈, 어미, 집사람, 안사람, ○○[자녀] 엄마
	장인, 장모에게		어멈, 어미, ○○[자녀] 엄마, 집사람, 안사람
	동기에게	손위 동기에게	○○[자녀] 엄마, 집사람, 안사람
		남동생에게	○○[자녀] 엄마, 형수
		여동생에게	○○[자녀] 엄마, 언니, 새언니, 올케, 올케언니
	동기의 배우자에게		○○[자녀] 엄마, 집사람, 안사람
	아내 동기에게	아내의 손위 동기에게	○○[자녀] 엄마, 집사람, 안사람
		아내의 남동생에게	○○[자녀] 엄마, 누나
		아내의 여동생에게	○○[자녀] 엄마, 언니
아내 동기의 배우자에게		○○[자녀] 엄마, 집사람, 안사람	
자녀에게		어머니, 엄마	

I. 가정에서의 호칭, 지칭

지 칭	며느리에게	어머니
	사위에게	장모
	친구에게	집사람, 안사람, 아내, 애어머니, 애 엄마, ○○[자녀] 엄마
	아내 친구에게	집사람, 안사람, 애어머니, 애 엄마, ○○[자녀] 엄마, ○○[자녀] 어머니
	아내 회사에 전화를 걸 때	○○○ 씨, 과장님, ○ 과장님, ○○○ 과장님
	아는 사람에게	○○[자녀] 엄마, ○○[자녀] 어머니, 집사람, 안사람, 아내, 처
	모르는 사람에게	집사람, 안사람, 아내, 처, 애어머니, 애 엄마

6.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동기와 그 배우자의 호칭, 지칭’도 계층과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 널리 쓰이는 말로 표준을 삼았다.

남자의 동기

형과 그 배우자

형을 부르는 말은 ‘형’, ‘형님’이다. 형을 그 당사자에게 가리키는 말도 호칭과 같은 ‘형’, ‘형님’이다. 부모에게 형을 가리킬 때에는 ‘형’만을 지칭으로 쓴다.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형을 가리켜 말할 때에는 ‘형’, ‘형님’을 쓴다. 처가 쪽 사람과 그 밖의 사람에게는 ‘형’, ‘형님’, ‘○○[자녀] 큰아버지’로 지칭한다. 자녀에게 형을 가리킬 때에는 자녀의 입장에서 ‘큰아버지’, ‘큰아버님’이라 한다.

표 I-12 형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형, 형님
지 칭	당사자에게	형, 형님
	부모에게	형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형, 형님
	처가 쪽 사람에게	형, 형님, ○○[자녀] 큰아버지
	자녀에게	큰아버지, 큰아버님
	그 밖의 사람에게	형, 형님, ○○[자녀] 큰아버지

형의 아내에 대한 호칭은 ‘형수님’, ‘아주머님’, ‘아주머니’로 한다. 당사자를 지칭할 때에도 호칭과 동일하게 ‘형수님’, ‘아주머님’, ‘아주머니’를 쓴다. 전통적인 호칭은 ‘아주머님’, ‘아주머니’라는 지적도 있으나, 현재 많이 쓰이는 ‘형수님’도 쓸 수 있다.

형의 아내를 부모에게 가리킬 때는 ‘형수’, ‘아주머니’를 쓴다.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가리킬 때는 ‘형수님’, ‘형수’, ‘아주머님’, ‘아주머니’로 지칭하는데 손아래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는 ‘형수’를 피해야 한다. 처가 쪽 사람에게 형의 아내를 가리킬 때는 ‘형수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자녀] 큰어머니’를 쓴다. 자녀에게 가리킬 때는 ‘큰어머니’, ‘큰어머님’을 쓰고, 그 밖의 사람에게는 ‘형수님’, ‘○○[자녀] 큰어머니’를 쓴다.

표 I-13 형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형수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지 칭	당사자에게	형수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부모에게	형수, 아주머니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형수님, 형수, 아주머님, 아주머니
	처가 쪽 사람에게	형수님, 아주머님, 아주머니, ○○[자녀] 큰어머니
	자녀에게	큰어머니, 큰어머님
	그 밖의 사람에게	형수님, ○○[자녀] 큰어머니

남동생과 그 배우자

남동생에 대한 호칭은 ‘○○[이름]’, ‘아우’, ‘동생’이다. 늙어서도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성년이 되어 혼인을 하면 대우를 해 주는 것이 전통적인 예의이다.

당사자, 부모,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남동생을 지칭할 경우에는 호칭과 같은 ‘○○[이름]’, ‘아우’, ‘동생’을 쓴다. 처가 쪽 사람에게는 ‘아우’, ‘동생’, ‘○○[자녀] 작은아버지’로 지칭한다. 자녀에게 가리킬 경우에는 자녀의 입장에서 ‘삼촌’, ‘작은아버지’를 쓴다. 그 밖의 사람에게 남동생을 가리킬 때는 ‘○○[이름]’, ‘아우’, ‘동생’, ‘○○[자녀] 작은아버지’를 쓴다.

표 I-14 남동생에 대한 호칭, 지칭 - 남자

호 칭		○○[이름], 아우, 동생
지 칭	당사자에게	○○[이름], 아우, 동생
	부모에게	○○[이름], 아우, 동생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이름], 아우, 동생
	처가 쪽 사람에게	아우, 동생, ○○[자녀] 작은아버지
	자녀에게	삼촌, 작은아버지
	그 밖의 사람에게	○○[이름], 아우, 동생, ○○[자녀] 작은아버지

남동생의 아내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제수(弟嫂)’, ‘계수(季嫂)’가 지칭으로 쓰였기 때문에 남동생의 아내에 대한 호칭은 ‘제수씨’, ‘계수씨’이다.

남동생의 아내를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과 같은 ‘제수씨’, ‘계수씨’를 쓰고, 부모,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는 ‘제수’, ‘제수씨’, ‘계수’, ‘계수씨’를 쓴다. 처가 쪽 사람과 그 밖의 사람에게 남동생의 아내를 가리킬 때는 ‘제수’, ‘제수씨’, ‘계수’, ‘계수씨’, ‘○○[자녀] 작은어머니’로 지칭한다. 자녀에게는 ‘작은어머니’, ‘숙모’로 지칭한다.

표 I-15 남동생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 남자

호 칭		제수씨, 계수씨
지 칭	당사자에게	제수씨, 계수씨
	부모에게	제수, 제수씨, 계수, 계수씨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제수, 제수씨, 계수, 계수씨
	처가 쪽 사람에게	제수, 제수씨, 계수, 계수씨, ○○[자녀] 작은어머니
	자녀에게	작은어머니, 숙모
	그 밖의 사람에게	제수, 제수씨, 계수, 계수씨, ○○[자녀] 작은어머니

누나와 그 배우자

누나를 부르는 말은 ‘누나’, ‘누님’이다. 누나를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도 호칭과 동일하다. 부모에게 누나를 지칭할 때는 ‘누나’를 쓴다.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는 누나를 ‘누나’, ‘누님’, ‘누이’로 지칭한다. ‘누이’는 여동생과 누나를 모두 아우르므로 ‘누나’, ‘누님’과 함께 지칭하는 말로 쓸 수 있다. 처가 쪽 사람과 그 밖의 사람에게 누나를 지

I. 가정에서의 호칭, 지칭

칭하는 말은 ‘누나’, ‘누님’, ‘누이’, ‘○○[자녀] 고모’이다. 자녀에게 가리킬 경우에는 ‘고모’, ‘고모님’을 쓴다.

표 I-16 누나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누나, 누님
지 칭	당사자에게	누나, 누님
	부모에게	누나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누나, 누님, 누이
	처가 쪽 사람에게	누나, 누님, 누이, ○○[자녀] 고모
	자녀에게	고모, 고모님
	그 밖의 사람에게	누나, 누님, 누이, ○○[자녀] 고모

누나의 남편에 대한 호칭은 ‘매형’, ‘자형’, ‘매부’이다. ‘매부’는 중부 지방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누나의 남편과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말이고, ‘매형’은 중부 지방에서 누나의 남편을 부르는 말이다. ‘자형(姊兄)’은 주로 남부 지방에서 누나의 남편을 부르는 말이므로 ‘표준 언어 예절’에 넣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자형’이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방에서도 이미 상당한 세력을 얻었으므로 ‘표준 언어 예절’로 인정한다.

지칭도 호칭과 같이 ‘매형’, ‘자형’, ‘매부’로 하고, 처가 쪽 사람과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자녀] 고모부’도 쓸 수 있다. 자녀에게는 그들의 위치에서

‘고모부’, ‘고모부님’으로 가리킨다.

표 I-17 누나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매형, 자형, 매부
지 칭	당사자에게	매형, 자형, 매부
	부모에게	매형, 자형, 매부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매형, 자형, 매부
	처가 쪽 사람에게	매형, 자형, 매부, ○○[자녀] 고모부
	자녀에게	고모부, 고모부님
	그 밖의 사람에게	매형, 자형, 매부, ○○[자녀] 고모부

여동생과 그 배우자

여동생을 부르는 말은 ‘○○[이름]’, ‘동생’이다. ‘동생’은 성년이 되어 이름을 부르기 어려운 경우에 쓴다. 당사자와 부모에게는 여동생을 호칭과 같은 ‘○○[이름]’, ‘동생’으로 지칭한다.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는 ‘○○[이름]’, ‘동생’, ‘누이’로 지칭한다. 처가 쪽 사람과 그 밖의 사람에게는 ‘누이동생’, ‘여동생’, ‘동생’, ‘누이’, ‘○○[자녀] 고모’로, 자녀에게는 그들의 위치에서 ‘고모’로 지칭한다.

I. 가정에서의 호칭, 지칭

표 I-18 여동생에 대한 호칭, 지칭 - 남자

호 칭		호 칭
지 칭	당사자에게	○○[이름], 동생
	부모에게	○○[이름], 동생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이름], 동생, 누이
	처가 쪽 사람에게	누이동생, 여동생, 동생, 누이, ○○[자녀] 고모
	자녀에게	고모
	그 밖의 사람에게	누이동생, 여동생, 동생, 누이, ○○[자녀] 고모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 서방’, ‘매부’, ‘매제’이다. ‘매제’는 일부 지역에
서만 쓰이는 말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제는 중부 지방에서도 세력
을 얻은 말이므로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말로 쓸 수 있다. 당사자, 부모,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는 호칭과 같은 말인 ‘○ 서방’, ‘매부’, ‘매제’로 지칭하고, 처가 쪽 사람에
게는 ‘매부’, ‘매제’, ‘○○[자녀] 고모부’로 지칭한다. 자녀에게는 그들의 위치에 서서
‘고모부’로, 그 밖의 사람에게는 ‘○ 서방’, ‘매부’, ‘매제’, ‘○○[자녀] 고모부’로 지
칭한다.

표 I-19 여동생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 남자

호 칭		호 칭
지 칭	당사자에게	○ 서방, 매부, 매제
	부모에게	○ 서방, 매부, 매제
	부모에게	○ 서방, 매부, 매제

지 칭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 서방, 매부, 매제
	처가 쪽 사람에게	매부, 매제, ○○[자녀] 고모부
	자녀에게	고모부
	그 밖의 사람에게	○ 서방, 매부, 매제, ○○[자녀] 고모부

여자의 동기

오빠와 그 배우자

오빠를 부르는 말은 ‘오빠’, ‘오라버니’, ‘오라버님’이다. 오빠를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에도 동일하다. 부모에게는 ‘오빠’, ‘오라버니’를 지칭으로 쓴다.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지칭할 때는 ‘오빠’, ‘오라버니’, ‘오라버님’을 쓴다. 단, 남동생에게는 그의 입장에서 ‘형’, ‘형님’이라 지칭할 수도 있다. 시댁 쪽 사람과 그 밖의 사람에게는 ‘오빠’, ‘친정 오빠’, ‘오라버니’, ‘친정 오라버니’, ‘○○[자녀] 외삼촌’이라고 지칭한다. 자녀에게 오빠를 지칭하는 말은 ‘외삼촌’, ‘외숙부’, ‘외숙부님’이다.

표 I-20 오빠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오빠, 오라버니, 오라버님
지 칭	당사자에게	오빠, 오라버니, 오라버님
	부모에게	오빠, 오라버니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오빠, 오라버니, 오라버님

I. 가정에서의 호칭, 지칭

지 칭	시댁 쪽 사람에게	오빠, 친정 오빠, 오라버니, 친정 오라버니, ○○[자녀] 외삼촌
	자녀에게	외삼촌, 외숙부, 외숙부님
	그 밖의 사람에게	오빠, 친정 오빠, 오라버니, 친정 오라버니, ○○[자녀] 외삼촌

오빠의 아내를 부르는 말은 ‘새언니’, ‘언니’이다. ‘새언니’, ‘언니’가 자신보다 나이가 적어도 마찬가지이다.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과 같은 ‘새언니’, ‘언니’를 쓰고, 부모,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지칭할 때는 ‘새언니’, ‘언니’, ‘올케’, ‘올케언니’를 쓴다. 단, 남동생에게는 그의 입장에서 ‘형수님’이라 지칭할 수도 있다. 시댁 쪽 사람과 그 밖의 사람에게는 ‘올케’, ‘올케언니’, ‘새언니’, ‘○○[자녀] 외숙모’를, 자녀에게는 ‘외숙모’, ‘외숙모님’으로 지칭한다.

표 I-21 오빠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새언니, 언니
지 칭	당사자에게	새언니, 언니
	부모에게	새언니, 언니, 올케, 올케언니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새언니, 언니, 올케, 올케언니
	시댁 쪽 사람에게	올케, 올케언니, 새언니, ○○[자녀] 외숙모
	자녀에게	외숙모, 외숙모님
	그 밖의 사람에게	올케, 올케언니, 새언니, ○○[자녀] 외숙모

남동생과 그 배우자

남동생을 부르는 말은 ‘○○[이름], ‘동생’이다. ‘동생’은 성년인 남동생에 대한 호칭이다. 당사자, 부모,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과 같은 ‘○○[이름], ‘동생’을 쓴다. 단, 당사자보다 손아래인 남동생에게는 그의 입장에서 ‘형’, ‘형님’, 여동생에게는 그의 입장에서 ‘오빠’라고 지칭할 수도 있다. 시댁 쪽 사람에게는 ‘친정 동생’, ‘○○[자녀] 외삼촌’으로 지칭하고, 자녀에게는 ‘외삼촌’, ‘외숙부’로 지칭한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이름], ‘동생’, ‘친정 동생’, ‘○○[자녀] 외삼촌’으로 지칭한다.

표 I-22 남동생에 대한 호칭, 지칭 - 여자

호 칭		○○[이름], 동생
지 칭	당사자에게	○○[이름], 동생
	부모에게	○○[이름], 동생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이름], 동생
	시댁 쪽 사람에게	친정 동생, ○○[자녀] 외삼촌
	자녀에게	외삼촌, 외숙부
	그 밖의 사람에게	○○[이름], 동생, 친정 동생, ○○[자녀] 외삼촌

남동생의 아내를 부르는 말은 ‘올케’이다. ‘○○[자녀] 엄마’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

나, 타인을 부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당사자, 부모,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과 같은 ‘올케’를 쓴다. 단, 당사자보다 손아래인 남동생에게는 그의 입장에서 ‘형수님’이라 지칭할 수도 있고 여동생에게는 그의 입장에서 ‘새언니’, ‘언니’라고 할 수도 있다. 시댁 쪽 사람과 그 밖의 사람에게는 ‘올케’와 자녀에 기댄 표현인 ‘○○[자녀] 외숙모’를, 자녀에게는 ‘외숙모’를 지칭으로 쓴다.

표 I-23 남동생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 여자

호 칭		올케
지 칭	당사자에게	올케
	부모에게	올케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올케
	시댁 쪽 사람에게	올케, ○○[자녀] 외숙모
	자녀에게	외숙모
	그 밖의 사람에게	올케, ○○[자녀] 외숙모

언니와 그 배우자

언니를 부르는 말은 ‘언니’이다. 언니를 당사자, 부모,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지칭하는 말도 ‘언니’이다. 단, 남동생에게는 그의 입장에서 ‘누나’, ‘누님’이라고 지칭할 수도 있다. 시댁 쪽 사람과 그 밖의 사람에게 언니를 가리킬 때에는 ‘언니’, ‘○○[자녀] 이모’를 쓰고, 자녀에게는 ‘이모’, ‘이모님’을 쓴다.

표 I-24 언니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언니
지 칭	당사자에게	언니
	부모에게	언니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언니
	시댁 쪽 사람에게	언니, ○○[자녀] 이모
	자녀에게	이모, 이모님
	그 밖의 사람에게	언니, ○○[자녀] 이모

언니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형부’이다. 당사자, 부모,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언니의 남편을 가리킬 때에도 ‘형부’를 쓴다. 단, 남동생에게는 그의 입장에서 ‘매형’, ‘자형’ 등으로 지칭할 수 있다.

시댁 쪽 사람과 그 밖의 사람에게는 언니의 남편을 ‘형부’, ‘○○[자녀] 이모부’라 지칭하고, 자녀에게는 그들의 입장에 서서 ‘이모부’, ‘이모부님’이라 지칭한다.

표 I-25 언니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형부
지 칭	당사자에게	형부
	부모에게	형부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형부
	시댁 쪽 사람에게	형부, ○○[자녀] 이모부
	자녀에게	이모부, 이모부님
	그 밖의 사람에게	형부, ○○[자녀] 이모부

여동생과 그 배우자

여동생을 부르는 말은 ‘○○[이름]’, ‘동생’이다. 여동생을 당사자, 부모,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가리킬 때에도 호칭과 같은 ‘○○[이름]’, ‘동생’을 쓴다. 동기에게는 동기의 처지에 맞게 ‘○○[이름]’, ‘동생’, ‘누나’, ‘언니’로 적절히 지칭할 수 있다. 시댁 쪽 사람과 그 밖의 사람에게는 ‘친정 여동생’과 자녀에 기댄 표현인 ‘○○[자녀] 이모’를, 자녀에게는 ‘이모’를 지칭으로 쓴다.

표 I-26 여동생에 대한 호칭, 지칭 - 여자

호 칭		○○[이름], 동생
지 칭	당사자에게	○○[이름], 동생
	부모에게	○○[이름], 동생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이름], 동생
	시댁 쪽 사람에게	친정 여동생, ○○[자녀] 이모
	자녀에게	이모
	그 밖의 사람에게	친정 여동생, ○○[자녀] 이모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 서방’, ‘제부’이다. 여동생의 남편을 ‘○ 서방’이라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제부’로 부른다. ‘제부’는 전통적인 호칭, 지칭은 아니나 ‘형부’의 대립어로 널리 쓰이게 되었으므로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고 가리키는 말로 쓸 수 있다. 당사자, 부모,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여동생의 남편을 지칭할 때도 호칭과 같은 ‘○ 서방’, ‘제부’를 쓴다. 남자 동기에게 지칭할 때에는 그의 입장에서 ‘매부’, ‘매형’, ‘자형’, ‘매제’ 등으로, 여동생에게 지칭할 때는 그의 입장에서 ‘제부’, ‘형부’라고 지칭할

수도 있다. 시댁 쪽 사람과 그 밖의 사람에게는 ‘동생의 남편’, ‘제부’와 자녀에게 기댄 ‘○○[자녀] 이모부’로 지칭하고 자녀에게는 ‘이모부’로 지칭한다.

표 I-27 여동생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 여자

호 칭		○ 서방, 제부
지 칭	당사자에게	○ 서방, 제부
	부모에게	○ 서방, 제부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 서방, 제부
	시댁 쪽 사람에게	동생의 남편, ○○[자녀] 이모부, 제부
	자녀에게	이모부
	그 밖의 사람에게	동생의 남편, ○○[자녀] 이모부, 제부

7. 남편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말이 사회적인 관습이라면, 호칭도 관습이다. 폐쇄 사회가 개방 사회로, 대가족 제도가 소가족 제도로 바뀌면서 호칭도 많이 변했다. 특히 가족 호칭은 문화적, 지역적 차이뿐만 아니라 집안에 따라 미묘한 차이점까지 있어서, 시댁에서의 호칭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기도 한다.

남편의 형

남편의 형에 대한 호칭은 ‘아주버님’이다. 남편의 형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르게 불러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미혼, 기혼을 구별하지 않고 호칭하는 것이 전통이므로 그것을 따른다.

남편의 형 당사자를 가리킬 때는 ‘아주버님’이라 한다. 남편의 형을 시댁 쪽 사람에게 지칭할 때도 ‘아주버님’이다. 남편 형의 순위 사람에게는 ‘아주버니’로 지칭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남편의 형은 어느 경우에도 ‘아주버님’으로 지칭하는 것이 옳다.

친정 쪽 사람과 그 밖의 사람에게 남편의 형을 가리킬 때는 ‘시아주버니’, 자녀에게 기댄 표현인 ‘○○[자녀] 큰아버지’를 쓴다. ‘시아주버니’에서 ‘시-’를 넣지 않아도 남편의 형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시아주버니’를 지칭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현실을 존중한 것이다. ‘시숙(嫗叔)’은 ‘남편의 형제를 이르는 말’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주로 남편의 형을 가리켜 ‘시숙’이라 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남편의 형을 친정 쪽 사람들과 그 밖의 사람에게 가리킬 때 쓸 수 있다. 또 시동생이 화자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도 그 시동생을 가리켜 ‘시숙’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에게 남편의 형을 가리킬 때는 자녀의 위치에 서서 ‘큰아버지’ 또는 ‘큰아버님’으로 지칭한다. 남편의 형이 여럿일 때는 ‘둘째 큰아버지’처럼 ‘첫째, 둘째……’ 등의 서열을 넣거나, 살고 있는 지역 이름을 넣어 ‘남양주 큰아버지’처럼 지칭할 수 있다.

표 I-28 남편의 형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아주버님
지 칭	당사자에게	아주버님
	시댁 쪽 사람에게	아주버님
	친정 쪽 사람에게	시아주버니, ○○[자녀] 큰아버지
	자녀에게	큰아버지, 큰아버님
	그 밖의 사람에게	시아주버니, ○○[자녀] 큰아버지

남편 형의 아내

남편 형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이전에 며느리 사이의 관계말로 ‘동서’가 옳은 말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동서(同壻)’는 같은 집의 사위들끼리의 관계말이고, 며느리 사이의 관계말은 ‘동시(同嫗)’가 맞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서(壻)’가 ‘사위 서’일 뿐만 아니라 ‘남편 서’로도 쓰이고, 국어사전에 ‘동서’는 ‘자매(姊妹)의 남편끼리 또는 형제의 아내끼리 서로 일컫는 말’로 이미 올라 있다. 지금도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므로 며느리 사이의 관계말로 ‘동서’가 옳다. ‘동시(同嫗)’는 사전에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다. 18세기 말에 편찬된 ‘재물보(才物譜)’에도 동생의 아내가 형의 아내를 ‘맏동서’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다.

남편 형의 아내에 대한 호칭은 ‘형님’이다. 전통적으로 동서는 남편의 나이 순서에 따라 서열이 정해져, 윗동서의 나이가 적더라도 ‘형님’으로 호칭하고 존댓말을 썼다. 윗동서에게 예절을 갖추는 것은 우선 남편의 형을 예우하는 것이란 점에서 지금도 이러한 전통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부모에게 남편 형의 아내를 지칭할 때는 ‘형님’이 원칙이되 ‘큰동서’, ‘맏동서(남편 맏형의 아내만)’로 지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부모 이외의 시댁 쪽 사람들에게 ‘형님’

으로 지칭한다. 친정 쪽 사람, 그 밖의 사람에게는 남편 형의 아내를 ‘큰동서’, ‘형님’, ‘맏동서(남편 맏형의 아내만)’, ‘○○[자녀] 큰어머니’로 지칭한다. 자녀에게는 자녀가 부르는 말인 ‘큰어머니’, ‘큰어머님’으로 지칭한다.

표 I-29 남편 형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형님
지 칭	당사자에게	형님
	시댁 쪽 사람에게	형님
	친정 쪽 사람에게	큰동서, 형님, 맏동서[남편 맏형의 아내만], ○○[자녀] 큰어머니
	자녀에게	큰어머니, 큰어머님
	그 밖의 사람에게	큰동서, 형님, 맏동서[남편 맏형의 아내만], ○○[자녀] 큰어머니

남편의 아우

남편의 아우, 곧 시동생이 미혼일 때 호칭은 ‘도련님’이다. ‘되렌님’으로 하는 지역이 있으나 ‘도련님’이 표준어이다. 남편의 아우가 여럿이 함께 있을 때는 혼란을 막기 위해 ‘첫째 도련님’, ‘둘째 도련님’처럼 서열을 넣어 호칭할 수 있다. 흔히 남편의 아우를 ‘삼촌’이라고 부르는 것을 본다. 그러나 전통적인 직접 호칭이 있을 때는 자녀에 기대어 호칭하는 ‘삼촌, 고모, 큰엄마, ……」 등과 같은 호칭은 쓰지 말아야 한다. 남편의 아우가 기혼일 때는 ‘서방님’으로 호칭한다. 물론 상황에 따라 ‘첫째 서방님, 둘째 서방

남'처럼 서열을 넣어 쓸 수 있다.

남편의 아우 당사자를 가리킬 때와 시댁 쪽 사람에게 남편의 아우를 가리킬 때는 호칭과 마찬가지로, 미혼자는 '도련님', 기혼자는 '서방님'으로 지칭한다. 친정 쪽 사람에게는 '시동생', '○○[자녀] 작은아버지', '○○[자녀] 삼촌'으로 지칭하고, 자녀에게는 자녀에 기대어 '작은아버지', '작은아버님', '삼촌'으로 지칭한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시동생', '도련님[미혼]', '서방님[기혼]', '○○[자녀] 작은아버지', '○○[자녀] 삼촌'을 쓴다.

표 I-30 남편의 아우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도련님[미혼], 서방님[기혼]
지 칭	당사자에게	도련님[미혼], 서방님[기혼]
	시댁 쪽 사람에게	도련님[미혼], 서방님[기혼]
	친정 쪽 사람에게	시동생, ○○[자녀] 작은아버지, ○○[자녀] 삼촌
	자녀에게	작은아버지, 작은아버님, 삼촌
	그 밖의 사람에게	시동생, 도련님[미혼], 서방님[기혼], ○○[자녀] 작은아버지, ○○[자녀] 삼촌

남편 아우의 아내

남편 아우, 곧 시동생의 아내는 며느리 사이의 관계말인 '동서'를 호칭으로 한다. '여보게', '○○[자녀] 엄마'도 널리 쓰이는 호칭이나 타인을 부르는 느낌이 들어 적절하지 않다. 물론 손아래 동서가 나이가 많을 때는 '동서'라고 호칭하고 존댓말을 하는 것이

전통적인 예법에 맞다. 마음의 정은 친동기간에게 주는 것과 같지만 동서끼리도 예의로 대접해야 한다.

남편 아우의 아내 당사자를 가리킬 때와 시댁 쪽 사람에게 남편 아우의 아내를 가리킬 때는 ‘동서’라고 지칭한다. 친정 쪽 사람, 그 밖의 사람에게는 ‘동서’, ‘작은동서’, 또는 ‘○○[자녀] 작은어머니’로 지칭하고, 자녀에게는 자녀의 위치에서 ‘작은어머니’, ‘작은어머님’으로 지칭한다.

표 I-31 남편 아우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동서
지 칭	당사자에게	동서
	시댁 쪽 사람에게	동서
	친정 쪽 사람에게	동서, 작은동서, ○○[자녀] 작은어머니
	자녀에게	작은어머니, 작은어머님
	그 밖의 사람에게	동서, 작은동서, ○○[자녀] 작은어머니

남편의 누나

남편의 누나에 대한 호칭은 ‘형님’이다. 남편의 누나 당사자를 가리킬 때와 시댁 쪽 사람에게 남편의 누나를 지칭할 때는 호칭과 마찬가지로 ‘형님’을 쓰고, 친정 쪽 사람과 그 밖의 사람에게는 ‘시누이’, ‘형님’, ‘○○[자녀] 고모’라고 지칭한다. ‘시누이’는

남편의 누나와 여동생을 아우르는 말이므로 남편의 누나를 지칭하는 말로 쓸 수 있고 ‘형님’은 남편의 누나를 가리키는 말로 흔히 쓰기 때문에 역시 쓸 수 있다. 자녀에게 지칭할 때는 자녀의 위치에 서서 ‘고모’ 또는 ‘고모님’으로 지칭한다.

표 I-32 남편의 누나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형님
지 칭	당사자에게	형님
	시댁 쪽 사람에게	형님
	친정 쪽 사람에게	시누이, 형님, ○○[자녀] 고모
	자녀에게	고모, 고모님
	그 밖의 사람에게	시누이, 형님, ○○[자녀] 고모

남편의 여동생

남편의 여동생에 대한 호칭은 ‘아가씨’, ‘아기씨’이다. 남편의 여동생이 혼인을 하여도 호칭에는 변함이 없다. 일반적으로 ‘아가씨’가 처녀나 젊은 여자를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가족 호칭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아가씨’가 남편의 여동생을 부르고 가리키는 말로 쓰였고 지금도 가장 널리 쓰이는 말이다. 한편 사대부집에서 쓰인 말 중 ‘작은아씨’는 듣기에 정겨운 말이지만 보편성이 없으므로 권장할 만하지 않다.

남편의 여동생 당사자를 가리킬 때와 시댁 쪽 사람에게 남편 여동생을 지칭할 때는 호

칭과 마찬가지로 ‘아가씨’, ‘아기씨’라 하고, 친정 쪽 사람에게는 ‘시누이’, ‘○○[자녀] 고모’를 지칭으로 쓴다. 자녀에게 남편의 여동생을 지칭할 때는 자녀의 위치에 서서 ‘고모’ 또는 ‘고모님’으로 지칭한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시누이’, ‘아가씨’, ‘아기씨’, ‘○○[자녀] 고모’를 쓴다.

표 I-33 남편의 여동생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아가씨, 아기씨
지 칭	당사자에게	아가씨, 아기씨
	시댁 쪽 사람에게	아가씨, 아기씨
	친정 쪽 사람에게	시누이, ○○[자녀] 고모
	자녀에게	고모, 고모님
	그 밖의 사람에게	시누이, 아가씨, 아기씨, ○○[자녀] 고모

시누이의 남편

전통적으로 시누이의 남편과 처남의 부인은 엄격한 내외법이 있어서 직접 부를 일도 없었고 부르는 말도 없었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생일잔치 등 모임 기회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이 두 사람이 자리를 같이 하는 경우도 찾아져 서로를 부르는 말이 필요하게 되었다.

남편 누나의 남편에 대한 호칭은 ‘아주버님’이다. ‘아주버님’은 현재 여러 지역에서 시누이 남편을 부르는 말로 쓰일 뿐 아니라 남편의 형을 가리키는 말과 같으므로 남편

누나의 남편에 대한 호칭으로 무난하다. ‘서방님’은 보통 손아래 사람(결혼한 시동생, 남편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말이므로 남편 누나의 남편 호칭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남편 누나의 남편 당사자를 가리킬 때에는 ‘아주버님’이라 지칭하고, 자녀에게는 자녀의 위치에 서서 ‘고모부’, ‘고모부님’으로 지칭한다. 자녀 외의 사람들에게는 ‘시누이 남편’, ‘아주버님’, ‘○○[지역] 아주버님’, ‘○○[자녀] 고모부’, ‘○○[자녀] 고모부님’으로 지칭한다.

남편 여동생의 남편에 대한 호칭은 ‘서방님’이다. ‘아주버님’, ‘아주버니’는 남편 누나의 남편을 이르는 말이라 적당하지 않고 ‘서방님’은 남편 여동생의 남편을 호칭할 때 두루 쓰이는 말이기 때문이다. ‘○○[자녀] 고모부님’은 간접 호칭이므로 좋지 않고, ‘시매부(媿妹夫)님’은 호칭으로 적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며느리는 시댁 쪽 사람들에게 남편이 부르는 것과 같이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를 넣어서 부르지 않기 때문이다.

남편 여동생의 남편을 자녀에게는 ‘고모부’, ‘고모부님’, 자녀 외의 사람들에게는 ‘시누이 남편’, ‘서방님’, ‘○○[지역] 서방님’, ‘○ 서방’, ‘○○[자녀] 고모부’, ‘○○[자녀] 고모부님’으로 지칭한다.

표 I-34 시누이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남편 누나의 남편	남편 여동생의 남편
호 칭		아주버님	서방님
지 칭	당사자에게	아주버님	서방님
	자녀에게	고모부, 고모부님	고모부, 고모부님
	자녀 외의 사람들에게	시누이 남편, 아주버님, ○○[지역] 아주버님, ○○[자녀] 고모부, ○○[자녀] 고모부님	시누이 남편, 서방님, ○○[지역] 서방님, ○ 서방, ○○[자녀] 고모부, ○○[자녀] 고모부님

8.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



요즈음은 예전에 비해 처가 출입도 빈번하고 친형제보다도 아내의 동기들과 더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호칭이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옛날에는 필요 없던 호칭이 필요하게도 되었다.

아내의 남자 동기

아내의 오빠를 부르는 말은 ‘형님’이다. 아내의 오빠에 대한 전통적인 호칭은 ‘처남’이었고 처가 쪽의 서열에 관계없이 연령순으로 위아래가 정해졌다는 것이 전통 윤리에 밝은 분들의 지적이다. 아내의 오빠와 나이가 열 살 이상 차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 벗 삼아 지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내의 오빠를 ‘형님’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여자가 시집을 가면 나이에 관계없이 남편 쪽의 서열에 따라 남편 동기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이 정해지는데 아내의 동기들에게는 여자의 서열에 관계없이 남자들의 나이에 따른다는 것이 지나친 남성 위주의 사고이다. 그뿐만 아니라 요즈음은 처남과 매부가 친형제 이상으로 가깝게 지내는 일이 많고 심지어 남에게도 ‘형님’이라고 하는데 손위 처남을 ‘형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낡은 주장이다. 따라서 현실을 존중하여 아내의 오빠를 부르는 말은 ‘형님’이라 하되 자신보다 나이가 어릴 경우에는 ‘처남’이라고 부를 수 있다.

아내 오빠 당사자를 가리킬 때와 아내에게 아내 오빠를 가리킬 때는 호칭과 마찬가지로 ‘형님’으로 지칭한다. 나이가 자신보다 적을 때는 ‘처남’이라고 할 수도 있다. 자신의 부모와 동기, 그리고 그 밖의 사람에게 말할 때는 ‘처남’, ‘○○[자녀] 외삼촌’이라고 한다. 장인, 장모에게 아내 오빠를 가리킬 때는 ‘형님’으로 지칭한다. 아내의 손위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는 ‘형님’으로 지칭하는데, 나이가 어릴 경우 ‘처남’으로 지칭할 수도 있다. 아내 오빠를 아내의 남동생에게는 ‘형님’, ‘형’으로, 아내의 여동생에게는 ‘오빠’라고 지칭할 수도 있다. 자녀들에게는 그들이 부르는 대로 ‘외삼촌’이라 하거나 ‘외숙부’, ‘외숙부님’이라고 한다.

아내 남동생을 부르는 말은 전통에 따라 ‘처남’이다. 아내의 남동생의 나이가 어리더라도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아내 남동생을 그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처남’, ‘자네’로 지칭한다. 아내에게 아내 남동생을 가리킬 때는 호칭과 마찬가지로 ‘처남’으로 지칭한다. 자신의 부모와 동기, 그 밖의 사람에게는 아내 남동생을 ‘처남’, ‘○○[자녀] 외삼촌’이라 한다. 장인, 장모에게 아내 남동생을 가리킬 때는 ‘처남’으로 지칭한다.

표 I-35 아내의 남자 동기에 대한 호칭, 지칭

		아내 오빠	아내 남동생
호 칭		형님	처남
지 칭	당사자에게	형님	처남, 자네
	아내에게	형님	처남
	부모, 동기, 그 밖의 사람에게	처남, ○○[자녀] 외삼촌	처남, ○○[자녀] 외삼촌
	장인, 장모에게	형님	처남
	아 내 의	손위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처남
		손아래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처남, 동생, 형님, 형, 오빠
	자녀에게	외삼촌, 외숙부, 외숙부님	외삼촌, 외숙부, 외숙부님

※ 두꺼운 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다음 표 [I-36]에서 상세히 다름.

아내의 순위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는 아내 남동생을 ‘처남’으로 지칭한다. 아내의 남동생이 여러 명인 경우 서열이 위인 남동생에게 그보다 서열이 아래인 남동생을 지칭할 때는 ‘처남’, ‘동생’이라 하고, 서열이 아래인 남동생에게 그보다 서열이 위인 남동생을 지칭할 때는 ‘형’ 또는 ‘형님’이라 지칭한다. 아내에게 남동생과 여동생이 모두 있는 경우 아내 여동생이 당사자인 남동생보다 순위이면 ‘처남’, ‘동생’으로, 아내 여동생이 당사자인 남동생보다 손아래이면 ‘오빠’로 지칭할 수 있다. 자녀에게는 ‘외삼촌’ 또는 ‘외숙부’, ‘외숙부님’이라고 지칭한다.

표 I-36 아내의 남동생을 아내의 동기에게 지칭할 때

화자	청 자		지칭어	
(~가)	(~에게)		(~라고 지칭한다.)	
나	① 아내 오빠, 아내 언니		처남	
	② 아내		처남	
	③ 아내 남동생, 아내 여동생		처남, 동생	
	④ 당사자인 남동생(지칭 대상)		처남	
	⑤ 아내 남동생	아내 여동생	형, 형님	오빠

※ 청자 칸의 ①~⑤는 아내 동기들의 서열을 나타냄.

아내 남자 동기의 배우자

아내 남자 동기의 아내 즉 처남의 맥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 하는 경우 중 하나다. 이 경우는 시누이의 남편 호칭과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서로 만나

직접 대화하는 일이 별로 없어 적당한 호칭이 없었다. 그러나 시속이 변하여 요즘은 만나는 일도 잦아졌고 또 가까이 지내는 집안도 많아서 그 호칭과 지칭도 필요하게 되었다.

아내 오빠의 아내에 대한 호칭은 ‘아주머니’이다. ‘아주머니’가 숙모(叔母)를 가리키는 말이고 요즘은 보통 남에게도 ‘아주머니’라 하기 때문에 아내 오빠의 아내를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지만 여러 지역에서 아내 오빠의 아내를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따라 ‘아주머니’를 표준으로 정한 것이다. ‘처남의 댁’이라는 말은 낮추어 말하는 느낌이 있어 아내 오빠의 아내에게 ‘처남의 댁’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내 오빠의 아내 당사자에게는 호칭어와 같이 ‘아주머니’를 쓰고 아내에게 아내 오빠의 아내를 가리킬 때는 ‘처남의 댁’, ‘처남댁’으로 지칭한다. 부모, 동기,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경우에는 ‘처남의 댁’, ‘처남댁’ 외에 자신의 자녀들에 기대어 표현한 ‘○○[자녀] 외숙모’도 쓸 수 있다. 장인, 장모에게 아내 오빠의 아내를 가리킬 때는 ‘처남의 댁’, ‘처남댁’으로 지칭한다.

아내 오빠의 아내를 아내의 순위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는 ‘처남의 댁’, ‘처남댁’으로 지칭하고, 아내의 남동생에게는 ‘형수’로, 아내의 여동생에게는 ‘새언니’, ‘언니’, ‘올케’, ‘올케언니’로 지칭할 수도 있다. 자녀들에게는 ‘외숙모’, ‘외숙모님’이라고 지칭한다.

아내 남동생의 아내를 부르는 호칭은 ‘처남의 댁’ 또는 ‘처남댁’이다. 전통적으로 써온 ‘처남의 댁’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쓰고 있는 ‘처남댁’도 쓸 수 있다. 아내 남동생의 아내 당사자를 가리킬 때와 아내에게 아내 남동생의 아내를 가리킬 때는 ‘처남의 댁’, ‘처남댁’으로 지칭한다. 부모, 동기, 그 밖의 사람에게는 ‘처남의 댁’, ‘처남댁’, ‘○○[자녀] 외숙모’라고 지칭한다. 장인, 장모에게 아내 남동생의 아내를 가리킬 때는 ‘처남의 댁’, ‘처남댁’으로 지칭한다.

아내 남동생의 아내를 아내의 순위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는 ‘처남의 댁’, ‘처남댁’으로 지칭한다. 아내의 남동생이 여러 명일 때 서열이 위인 남동생에게 서열이 아래인 남동생의 아내를 지칭할 때는 ‘처남의 댁’, ‘처남댁’이라 하고, 서열이 아래인 남동생에

I. 가정에서의 호칭, 지칭

게 서열이 위인 남동생의 아내를 지칭할 때는 ‘형수’라고 지칭한다.

아내의 여동생한테 아내의 남동생의 아내를 가리켜, 여동생이 그 남동생의 누나일 경우 ‘처남의 댁’, ‘처남댁’으로 지칭한다. 여동생이 그 남동생의 여동생일 경우 ‘새언니’, ‘언니’, ‘올케’, ‘올케언니’로 지칭한다. 자녀에게 아내 남동생의 부인을 가리키는 말은 ‘외숙모’, ‘외숙모님’이다.

표 I-37 아내 남자 동기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 지칭

		아내 오빠의 아내	아내 남동생의 아내
호 칭		아주머니	처남의 댁, 처남댁
지 칭	당사자에게	아주머니	처남의 댁, 처남댁
	아내에게	처남의 댁, 처남댁	처남의 댁, 처남댁
	부모, 동기, 그 밖의 사람에게	처남의 댁, 처남댁, ○○[자녀] 외숙모	처남의 댁, 처남댁, ○○[자녀] 외숙모
	장인, 장모에게	처남의 댁, 처남댁	처남의 댁, 처남댁
	아 내 의	손위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처남의 댁, 처남댁
		손아래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형수, 새언니, 언니, 올케, 올케언니
	자녀에게	외숙모, 외숙모님	외숙모, 외숙모님

아내의 여자 동기

아내의 언니를 부르는 말은 ‘처형’이다.

아내 언니 당사자와 아내에게 아내의 언니를 가리킬 때는 모두 ‘처형’을 쓴다. 부모, 동기,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처형’, ‘○○[자녀] 이모’를 쓴다. 장인, 장모에게 아내 언니를 가리킬 때도 ‘처형’으로 지칭한다.

아내 언니를 아내의 순위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는 ‘처형’으로 지칭한다. 아내의 남동생에게는 ‘누나’, ‘누님’으로, 아내의 여동생에게는 ‘언니’라고 지칭할 수도 있다. 자녀에게는 ‘이모’, ‘이모님’으로 지칭한다.

표 I-38 아내의 여자 동기에 대한 호칭, 지칭

		아내 언니	아내 여동생
호 칭		처형	처제
지 칭	당사자에게	처형	처제
	아내에게	처형	처제
	부모, 동기, 그 밖의 사람에게	처형, ○○[자녀] 이모	처제, ○○[자녀] 이모
	장인, 장모에게	처형	처제
	아 내 의	순위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처제
		순아래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처형, 동생, 누나, 누님, 언니
	자녀에게	이모, 이모님	이모, 이모님

※ 두꺼운 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다음 표 [I-39]에서 상세히 다룸.

I. 가정에서의 호칭, 지칭

아내 여동생을 부르는 말은 ‘처제’이다. 아내 여동생 당사자와 아내에게 아내 여동생을 지칭할 때는 모두 ‘처제’를 쓴다. 부모, 동기,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처제’ 또는 ‘○○[자녀] 이모’라고 한다. 장인, 장모에게 아내 여동생을 가리킬 때도 ‘처제’로 지칭한다. 아내 여동생을 아내의 순위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는 ‘처제’로 지칭한다.

아내의 여동생에게 그 여동생을 지칭할 때는 ‘처제’, ‘동생’이라 하고, 아내의 여동생에게 그 언니를 지칭할 때는 ‘언니’라고 지칭한다. 아내에게 남동생과 여동생이 다 있는 경우 아내의 남동생에게 그 여동생을 ‘처제’, ‘동생’으로, 아내의 남동생에게 그 누나를 ‘누나’, ‘누님’으로 지칭할 수 있다. 자녀에게는 처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모’, ‘이모님’을 쓸 수 있다.

표 I-39 아내의 여동생을 아내의 동기에게 지칭할 때

화자	청 자		지칭어	
(~가)	(~에게)		(~라고 지칭한다.)	
나	① 아내 오빠, 아내 언니		처제	
	② 아내		처제	
	③ 아내 남동생, 아내 여동생		처제, 동생	
	④ 당사자인 여동생(지칭 대상)		처제	
	⑤ 아내 남동생	아내 여동생	누나, 누님	언니

※ 청자 칸의 ①~⑤는 아내 동기들의 서열을 나타냄.

아내 여자 동기의 배우자

아내 언니의 남편을 부르는 호칭은 ‘형님’, ‘동서’이다. 아내 오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내 언니의 남편에게도 ‘동서’라고 해야지 ‘형님’이라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역시 현실을 존중해서 아내 언니의 남편은 ‘형님’으로 부르는데, 나이가 적으면 ‘동서’로 부른다.

아내 언니의 남편 당사자를 가리킬 때와 아내에게 아내 언니의 남편을 가리킬 때는 ‘형님’으로 지칭한다. 아내 언니의 남편이 자신보다 어릴 때는 ‘동서’라고 할 수도 있다. 부모, 동기, 그 밖의 사람에게는 ‘동서’, ‘○○[자녀] 이모부’로 지칭한다. 장인, 장모에게 아내 언니의 남편을 가리킬 때는 ‘형님’으로 지칭한다. 아내 언니의 남편을 아내의 손위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형님’으로 지칭하고, 아내의 남동생에게는 ‘매형’, ‘자형’, ‘매부’로, 아내의 여동생에게는 ‘형부’로 지칭할 수도 있다. 자녀에게는 ‘이모부’, ‘이모부님’으로 지칭한다.

아내 여동생의 남편을 부르는 호칭은 전통적으로 불러 오던 대로 ‘동서’ 또는 ‘○ 서방’이다.

아내 여동생의 남편 당사자를 가리킬 때 ‘동서’ 또는 ‘○ 서방’이라 한다. 아내에게 아내 여동생의 남편을 가리킬 때는 ‘동서’ 또는 ‘○ 서방’으로 지칭한다. 부모, 동기, 그 밖의 사람에게는 ‘동서’, ‘○○[자녀] 이모부’라고 지칭한다. 장인, 장모에게 아내 여동생의 남편을 가리킬 때는 ‘동서’, ‘○ 서방’으로 지칭한다. 아내 여동생의 남편을 아내의 손위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는 ‘동서’, ‘○ 서방’으로 지칭한다. 아내의 남동생에게 그 여동생의 남편을 지칭할 때는 ‘동서’, ‘○ 서방’이라 하고, 아내의 남동생에게 그 누나의 남편을 지칭할 때는 ‘매형’, ‘자형’, ‘매부’라고 지칭한다. 아내에게 남동생과 여동생이 다 있을 때 아내의 여동생에게 그 여동생의 남편을 지칭하는 말은 ‘동서’, ‘○ 서방’이다. 아내의 여동생에게 그 언니의 남편을 지칭하는 말은 ‘형부’이다. 물론 자녀에게는 ‘이모부’, ‘이모부님’으로 지칭한다.

I. 가정에서의 호칭, 지칭

표 I-40 아내 여자 동기의 배우자에 대한 호칭, 지칭

		아내 언니의 남편	아내 여동생의 남편
호 칭		형님	동서, ○ 서방
지 칭	당사자에게	형님	동서, ○ 서방
	아내에게	형님	동서, ○ 서방
	부모, 동기, 그 밖의 사람에게	동서, ○○[자녀] 이모부	동서, ○○[자녀] 이모부
	장인, 장모에게	형님	동서, ○ 서방
	아 내 의	손위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동서, ○ 서방
		손아래 동기와 그 배우자에게	매형, 자형, 매부, 형부, 형님 ○ 서방
	자녀에게	이모부, 이모부님	이모부, 이모부님

9. 조부모와 손주 사이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자녀의 자녀인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자녀를 시댁뿐만 아니라 처가에 맡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시댁이나 처가 출입이 잦아 남편의 조부모나 아내의 조부모를 부르고 가리킬 일도 많아졌다. 조부모, 외조부모를 자녀에게 가리키는 말은 남자의 경우와 여자의 경우가 다르다.

조부모, 외조부모에 대한 호칭, 지칭

아버지의 아버지를 부르는 말은 ‘할아버지’ 이고, 아버지의 어머니를 부르는 말은 ‘할머니’ 이다. 또 어머니의 아버지를 부르는 말은 ‘외할아버지’ 이고, 어머니의 어머니를 부르는 말은 ‘외할머니’ 이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부모를 아버지의 부모와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어머니의 부모를 호칭할 때에 ‘외-’를 붙이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 라고 부르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할아버지’, ‘할머니’ 라고 부를 수 있다.

조부모를 그 당사자에게 가리키는 말은 호칭과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고, 외조부모를 그 당사자에게 가리키는 말도 호칭과 같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이다. 조부모나 외조부모를 그 배우자에게 지칭하는 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나의 부모, 형제, 자매, 친척, 배우자와 배우자 쪽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조부모와 외조부모가 구별되도록 조부모를 가리켜 ‘할아버지’, ‘할머니’, 외조부모를 가리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라고 한다.

자녀에게 나의 조부모와 외조부모를 가리키는 말은 내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내가 남자일 때는 자녀에게 내 조부모를 가리켜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증조(曾祖)’를 붙여 ‘증조할아버지’, ‘증조부’, ‘증조할머니’, ‘증조모’ 로 가리킬 수 있고, 이 말들 뒤에 ‘-님’을 붙일 수도 있다. 외조부모는 자녀에게 ‘아버지 외할아버지’, ‘아버지 외할머니’ 라고 한다. 또 ‘진외(陳外)’를 붙여 ‘진외할아버지’, ‘진외조부’, ‘진외할머니’, ‘진외조모’ 로 가리킬 수도 있고, 이

말들 뒤에 ‘-님’을 붙일 수도 있다.

내가 여자일 때는 자녀에게 내 조부모를 가리켜 ‘어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할머니’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외(外)’를 붙여 ‘외증조할아버지’, ‘외증조부’, ‘외증조할머니’, ‘외증조모’로 가리킬 수 있고, 이 말들 뒤에 ‘-님’을 붙일 수 있다. 자녀에게 내 외조부모를 가리킬 때는 ‘어머니 외할아버지’, ‘어머니 외할머니’라고 한다. 또 한 번 더 ‘외(外)’를 붙여 ‘외외증조할아버지’, ‘외외증조부’, ‘외외증조할머니’, ‘외외증조모’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말들 뒤에 ‘-님’을 붙일 수 있다.

표 I-41 조부모, 외조부모에 대한 호칭, 지칭

		조부모	외조부모
호 칭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지 칭	당사자와 그 배우자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부모, 형제, 자매, 친척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내와 처가 쪽 사람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남편과 시댁 쪽 사람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친정 할아버지, 친정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정 외할아버지, 친정 외할머니

시조부모, 시외조부모에 대한 호칭, 지칭

시조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자신의 조부모뿐만 아니라 남편의 조부모까지 부르고 가리키게 된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경칭인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편의 할아버지인 시조부(嫜祖父)를 ‘할아버님’이라고 부른다.

시조부를 그 당사자에게 가리키는 말은 호칭과 같은 ‘할아버님’이다. 시조부를 시조모에게 지칭할 때나 시부모, 남편, 시댁 쪽 사람에게 지칭할 때도 경칭인 ‘할아버님’을 쓴다.

시조부를 부모나 동기, 친정 쪽 사람에게 가리킬 때는 ‘시(嫜)-’를 붙인 ‘시할아버지’, ‘시조부’와 자녀에 기댄 ‘○○[자녀] 증조할아버지’, ‘○○[자녀] 증조부’를 지칭으로 쓰는데, 이 말들 뒤에 ‘-님’을 붙여 쓸 수도 있다.

표 I-42 시조부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할아버님
지 칭	당사자에게	할아버님
	시조모에게	할아버님
	시부모에게	할아버님
	남편, 시댁 쪽 사람에게	할아버님
	부모, 동기, 친정 쪽 사람에게	시할아버님, 시할아버지, 시조부님, 시조부, ○○[자녀] 증조할아버님, ○○[자녀] 증조할아버지, ○○[자녀] 증조부님, ○○[자녀] 증조부

시조모

남편의 할머니인 시조모(嫄祖母)는 ‘할머님’, ‘할머니’라고 부른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보다 친근한 대상인 시어머니를 ‘어머니’, ‘어머님’으로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조모를 ‘할머님’, ‘할머니’로 부를 수 있다.

시조모를 그 당사자에게 가리키는 말도 호칭과 같은 ‘할머님’, ‘할머니’이다. 시조모를 시조부에게 지칭하는 말도 ‘할머님’, ‘할머니’이다. 시부모나 남편, 시댁 쪽 사람에게서는 남편의 할머니를 예의를 갖추어 지칭해야 하므로 경칭인 ‘할머님’을 쓴다.

부모, 동기, 친정 쪽 사람에게 시조모를 지칭할 때는 ‘시-’를 붙인 ‘시할머니’, ‘시조모’와 자녀에 기댄 ‘○○[자녀] 증조할머니’, ‘○○[자녀] 증조모’를 쓰는데, 이 말들 뒤에 ‘-님’을 붙여 쓸 수도 있다.

표 I-43 시조모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할머님, 할머니
지 칭	당사자에게	할머님, 할머니
	시조부에게	할머님, 할머니
	시부모에게	할머님
	남편, 시댁 쪽 사람에게	할머님
	부모, 동기, 친정 쪽 사람에게	시할머님, 시할머니, 시조모님, 시조모, ○○[자녀] 증조할머님, ○○[자녀] 증조할머니, ○○[자녀] 증조모님, ○○[자녀] 증조모

시외조부

남편의 외할아버지인 시외조부(媿外祖父)를 부르는 말은 ‘할아버님’, ‘외할아버님’이다. 시외조부를 시조부와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외(外)-’를 붙이지 않고 ‘할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할아버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시외조부를 그 당사자에게 가리키는 말은 호칭과 같은 ‘할아버님’, ‘외할아버님’이다. 시외조부를 시외조모에게 지칭할 때도 ‘할아버님’, ‘외할아버님’을 쓴다. 시부모나 남편, 시댁 쪽 사람에게는 시조부와 구별이 되도록 ‘외할아버님’이라고 지칭한다.

시외조부를 부모, 동기, 친정 쪽 사람에게는 ‘시외(媿外)-’를 붙인 ‘시외할아버지’, ‘시외조부’를 쓰고 자녀에 기댄 ‘○○[자녀] 진외증조부’를 쓸 수도 있는데, 이 말들 뒤에 ‘-님’을 붙일 수 있다.

표 I-44 시외조부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할아버님, 외할아버님
지 칭	당사자에게	할아버님, 외할아버님
	시외조모에게	할아버님, 외할아버님
	시부모에게	외할아버님
	남편, 시댁 쪽 사람에게	외할아버님
	부모, 동기, 친정 쪽 사람에게	시외할아버님, 시외할아버지, 시외조부님, 시외조부

시외조모

남편의 외할머니인 시외조모(媿外祖母)는 ‘할머님’, ‘할머니’, ‘외할머님’, ‘외할머니’라고 부른다. 시외조모를 시조모와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외-’를 붙이지 않고 ‘할머님’, ‘할머니’라고 부르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할머님’, ‘할머니’라고 부를 수도 있다.

시외조모를 그 당사자에게 가리키는 말도 호칭과 같은 ‘할머님’, ‘할머니’, ‘외할머님’, ‘외할머니’이다. 시외조모를 시외조부에게 지칭하는 말도 ‘할머님’, ‘할머니’, ‘외할머님’, ‘외할머니’이다. 시부모나 남편, 시댁 쪽 사람에게 시외조모를 지칭할 때는 시조모와 구별이 되도록 ‘외할머님’을 쓴다.

부모, 동기, 친정 쪽 사람에게 시외조모를 지칭할 때는 ‘시-’를 붙인 ‘시외할머님’, ‘시외할머니’, ‘시외조모님’, ‘시외조모’를 쓴다. 자녀에 기댄 ‘○○[자녀] 진외증조할머니’, ‘○○[자녀] 진외증조모’를 쓸 수도 있는데, 이 말들 뒤에 ‘-님’을 붙일 수 있다.

표 I-45 시외조모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할머님, 할머니, 외할머님, 외할머니
지 칭	당사자에게	할머님, 할머니, 외할머님, 외할머니
	시외조부에게	할머님, 할머니, 외할머님, 외할머니
	시부모에게	외할머님
	남편, 시댁 쪽 사람에게	외할머님
	부모, 동기, 친정 쪽 사람에게	시외할머님, 시외할머니, 시외조모님, 시외조모

처조부모, 처외조부모에 대한 호칭, 지칭

처조부

남자가 결혼을 하면 자신의 조부모뿐만 아니라 아내의 조부모까지 부르고 가리키게 된다. 사위가 장인을 ‘아버지’라고 불러서는 안 되듯이 손녀사위가 아내의 할아버지인 처조부(妻祖父)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사위가 장인을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손녀사위는 처조부를 ‘할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조부를 그 당사자에게 가리키는 말은 호칭과 같은 ‘할아버님’이다. 처조부를 처조모에게 지칭할 때도 ‘할아버님’을 쓴다. 처조부를 처부모, 아내, 처가 쪽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추어 지칭해야 하므로 경칭인 ‘할아버님’을 쓴다.

처조부를 부모, 동기, 친척에게 가리킬 때에는 ‘처조부’와 자녀에 기댄 ‘○○[자녀] 외증조할아버지’, ‘○○[자녀] 외증조부’를 쓰는데, 이 말들 뒤에 ‘-님’을 붙여 쓸 수도 있다.

표 I-46 처조부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할아버님
지 칭	당사자에게	할아버님
	처조모에게	할아버님
	처부모에게	할아버님
	아내, 처가 쪽 사람에게	할아버님
	부모, 동기, 친척에게	처조부님, 처조부, ○○[자녀] 외증조할아버님, ○○[자녀] 외증조할아버지, ○○[자녀] 외증조부님, ○○[자녀] 외증조부

처조모

아내의 할머니인 처조모(妻祖母)는 ‘할머님’이라고 부른다. 사위가 장모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듯이 처조모는 ‘할머님’이라고 부른다.

처조모를 그 당사자나 처조부에게 가리키는 말도 호칭과 같은 ‘할머님’이다. 처조모를 처부모, 아내, 처가 쪽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어 지칭해야 하므로 마찬가지로 경칭인 ‘할머님’을 쓴다.

부모, 동기, 친척에게 처조모를 지칭할 때는 ‘처조모’와 자녀에 기댄 ‘○○[자녀] 외증조할머니’, ‘○○[자녀] 외증조모’를 쓰는데, 이 말들 뒤에 ‘-님’을 붙여 쓸 수도 있다.

표 I-47 처조모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할머님
지 칭	당사자에게	할머님
	처조부에게	할머님
	처부모에게	할머님
	아내, 처가 쪽 사람에게	할머님
	부모, 동기, 친척에게	처조모님, 처조모, ○○[자녀] 외증조할머님, ○○[자녀] 외증조할머니, ○○[자녀] 외증조모님, ○○[자녀] 외증조모

처외조부

아내의 외할아버지인 처외조부(妻外祖父)를 부르는 말은 ‘할아버님’, ‘외할아버님’이다. 처외조부를 처조부와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외-’를 붙이지 않고 ‘할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할아버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처외조부를 그 당사자에게 가리키는 말은 호칭과 같은 ‘할아버님’, ‘외할아버님’이다. 처외조부를 처외조모에게 지칭할 때도 ‘할아버님’, ‘외할아버님’을 쓴다. 처부모나 아내, 처가 쪽 사람에게는 처조부와 구별이 되도록 ‘외할아버님’이라고 지칭한다.

처외조부를 부모, 동기, 친척에게 가리킬 때는 ‘처외조부님’, ‘처외조부’를 쓴다. 자녀에 기댄 ‘○○[자녀] 외외증조할아버지’, ‘○○[자녀] 외외증조부’를 쓸 수도 있는데, 이 말들 뒤에 ‘-님’을 붙일 수도 있다.

표 I-48 처외조부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할아버님, 외할아버님
지 칭	당사자에게	할아버님, 외할아버님
	처외조모에게	할아버님, 외할아버님
	처부모에게	외할아버님
	아내, 처가 쪽 사람에게	외할아버님
	부모, 동기, 친척에게	처외조부님, 처외조부

처외조모

아내의 외할머니인 처외조모(妻外祖母)는 ‘할머님’, ‘할머니’, ‘외할머님’, ‘외할머니’라고 부른다. 처외조모를 처조모와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외-’를 붙이지 않고 ‘할머님’, ‘할머니’라고 부르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할머님’, ‘할머니’라고 부를 수도 있다.

처외조모를 그 당사자에게 가리키는 말도 호칭과 같은 ‘할머님’, ‘할머니’, ‘외할머님’, ‘외할머니’이다. 처외조모를 처외조부에게 지칭할 때도 ‘할머님’, ‘할머니’, ‘외할머님’, ‘외할머니’를 쓴다. 처부모나 아내, 처가 쪽 사람에게는 아내의 할머니와 구별이 되도록 ‘외할머님’이라고 지칭한다.

부모, 동기, 친척에게 처외조모를 지칭할 때는 ‘처외조모님’, ‘처외조모’를 쓴다. 자녀에 기댄 ‘○○[자녀] 외외증조할머니’, ‘○○[자녀] 외외증조모’를 쓸 수도 있는데, 이 말들 뒤에 ‘-님’을 붙일 수도 있다.

표 I-49 처외조모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할머님, 할머니, 외할머님, 외할머니
지 칭	당사자에게	할머님, 할머니, 외할머님, 외할머니
	처외조부에게	할머님, 할머니, 외할머님, 외할머니
	처부모에게	외할머님
	아내, 처가 쪽 사람에게	외할머님
	부모, 동기, 친척에게	처외조모님, 처외조모

손주, 외손주에 대한 호칭, 지칭

손주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듯이 조부모의 손주에 대한 사랑은 각별하다. 내 아들, 딸의 자녀인 손주는 ‘철수야!’ 처럼 이름으로 부른다. 그런데 손주가 혼인을 하고 자녀가 생기면 이름뿐만 아니라 ‘○○[손주 자녀] 아범’, ‘○○[손주 자녀] 아비’, ‘○○[손주 자녀] 어멈’, ‘○○[손주 자녀] 어미’로도 부를 수 있다. 손주의 자녀가 곁에 있는 상황에서는 손주를 그 자녀 앞에서 존중하기 위해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좋다.

손주를 그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이름을 쓴다. 나의 배우자, 부모 등에게도 손주를 이름으로 지칭한다. 손주의 부모인 아들과 며느리, 친척에게도 손주를 이름으로 가리킨다.

손주를 그 밖의 사람에게 가리킬 때는 가까운 사이에서는 손주의 이름으로 지칭하고, 잘 모르는 사이에서는 ‘손자’, ‘손녀’로 지칭할 수 있다.

표 I-50 손주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이름]
지 칭	집안 사람들에게	○○[이름]
	그 밖의 사람에게	○○[이름], 손자, 손녀

외손주

내 딸의 자녀인 외손주도 이름으로 부른다. 그런데 외손주가 혼인을 하고 자녀가 생기면 이름뿐만 아니라 ‘○○[외손주 자녀] 아범’, ‘○○[외손주 자녀] 아비’, ‘○○[외손주 자녀] 어멈’, ‘○○[외손주 자녀] 어미’로도 부를 수 있다. 외손주의 자녀가 곁에 있는 상황에서는 외손주를 그 자녀 앞에서 존중하기 위해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좋다.

외손주를 그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이름을 쓴다. 나의 배우자, 부모 등에게도 외손주를 이름으로 지칭한다. 외손주의 부모인 딸과 사위, 친척에게도 외손주를 이름으로 지칭한다.

외손주를 그 밖의 사람에게 가리킬 때는 가까운 사이에서는 외손주의 이름으로 지칭하고, 잘 모르는 사이에서는 ‘외손자’, ‘외손녀’로 지칭할 수 있다.

표 I-51 외손주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이름]
지 칭	집안 사람들에게	○○[이름]
	그 밖의 사람에게	○○[이름], 외손자, 외손녀

10. 숙질 사이



숙질간의 호칭과 지칭은 다음 원칙에 따른다.

첫째, 지칭은 호칭과 같다.

둘째, 처가 쪽 숙질에 대한 호칭은 아내가 부르는 대로 하고 지칭은 그 앞에 ‘처-’를 붙인다. 외가 쪽 숙질에 대한 호칭, 지칭에는 ‘외-’를 붙인다.

아버지의 형

아버지의 형을 부르는 말은 ‘큰아버지’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형제 가운데 맏형만을 ‘큰아버지’라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버지의 형은 모두 ‘큰아버지’이다. 구어(口語)로는 자기의 혈족에게 ‘-님’을 붙이지 않으므로 친조카는 ‘큰아버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나 편지에서는 ‘큰아버님, 보시옵소서.’처럼 ‘-님’을 넣어 ‘큰아버님’을 쓸 수 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아버님’이라고 부르듯이 조카며느리는 남편의 큰아버지를 ‘큰아버님’이라고 부른다. ‘백부’는 지칭으로는 쓸 수 있지만 호칭으로는 적당치 않다.

아버지의 형을 그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과 같이 ‘큰아버지’라고 한다. 내가 남자일 경우에 자녀에게는 자녀의 입장에서 ‘큰할아버지’라고 하거나 ‘장충동 큰할아버지’, ‘장충동 할아버지’처럼 ‘○○동’과 같은 지역 이름을 넣어 지칭할 수 있으며 ‘종조(從祖)’를 붙인 ‘큰종조할아버지’, ‘종조할아버지’, ‘큰종조부’, ‘종조부’를 쓸 수도 있는데 이 말들 뒤에 ‘-님’을 붙일 수도 있다. 또 ‘아버지 큰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다.

한편, 내가 여자일 경우에 친정 큰아버지가 자녀에게는 외할아버지의 형이 되므로, 자녀에게 가리킬 때 ‘큰외할아버지’라고 하거나 ‘장충동 큰외할아버지’, ‘장충동 외할아버지’와 같이 지역 이름을 넣어 가리킬 수 있으며 ‘외종조(外從祖)’를 붙인 ‘큰외종조할아버지’, ‘외종조할아버지’, ‘큰외종조부’, ‘외종조부’를 쓸 수도 있는데 이 말들 뒤에 ‘-님’을 붙일 수도 있다. 또 ‘어머니 큰아버지’를 써도 된다.

아버지의 형을 그 자녀에게 가리킬 때는 그 당사자의 자녀가 나보다 어리거나 동갑인 경우에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버지 계시냐?’ 처럼 ‘아버지’로 지칭하고,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나의 입장에서 ‘큰아버지 계십니까?’ 처럼 ‘큰아버지’로 지칭한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큰아버지’, ‘백부(伯父)’ [아버지 만형만]로 지칭한다.

표 I-52 아버지의 형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큰아버지
지 칭	당사자에게	큰아버지
	자녀에게	큰할아버지, 큰할아버님, ○○[지역] 큰할아버지, ○○[지역] 큰할아버님, ○○[지역] 할아버지, ○○[지역] 할아버님
	당사자의 자녀에게	아버지, 아빠, 큰아버지
	그 밖의 사람에게	큰아버지, 백부[아버지 만형만]

아버지 형의 아내

아버지 형의 아내를 부르는 말은 ‘큰어머니’이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듯이 조카며느리는 남편의 큰어머니를 ‘큰어머님’이라고 부른다. ‘백모’는 지칭으로는 쓸 수 있지만 호칭으로는 적당치 않다.

아버지 형의 아내를 그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과 같이 ‘큰어머니’라고 한다. 내가 남자일 경우에 자녀에게는 자녀의 입장에서 ‘큰할머니’라고 하거나 ‘장충동 큰할머

니’, ‘장충동 할머니’처럼 ‘○○동’과 같은 지역 이름을 넣어 지칭할 수 있으며 ‘종조(從祖)’를 붙인 ‘큰종조할머니’, ‘종조할머니’, ‘큰종조모’, ‘종조모’를 쓸 수도 있는데 이 말들 뒤에 ‘-님’을 붙일 수도 있다. 또 ‘아버지 큰어머니’를 쓸 수 있다.

한편, 내가 여자일 경우에 친정 큰어머니가 자녀에게는 외할아버지 형의 아내가 되므로, 자녀에게 가리킬 때 ‘큰외할머니’라고 하거나 ‘장충동 큰외할머니’, ‘장충동 외할머니’와 같이 지역 이름을 넣어 가리킬 수 있다. 또 ‘외종조(外從祖)’를 붙인 ‘큰외종조할머니’, ‘외종조할머니’, ‘큰외종조모’, ‘외종조모’를 쓸 수도 있는데 이 말들 뒤에 ‘-님’을 붙일 수도 있다. 또 ‘어머니 큰어머니’를 써도 된다.

아버지 형의 아내를 그 자녀에게 가리킬 때는 그 당사자의 자녀가 나보다 어리거나 동갑인 경우에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머니’, ‘엄마’로 지칭하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나의 입장에서 ‘큰어머니’로 지칭한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큰어머니’, ‘백모(伯母)’ [아버지 만형의 아내만]로 지칭한다.

표 I-53 아버지 형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큰어머니
지 칭	당사자에게	큰어머니
	자녀에게	큰할머니, 큰할머님, ○○[지역] 큰할머니, ○○[지역] 큰할머님, ○○[지역] 할머니, ○○[지역] 할머님
	당사자의 자녀에게	어머니, 엄마, 큰어머니
	그 밖의 사람에게	큰어머니, 백모[아버지 만형의 아내만]

아버지의 남동생

아버지의 남동생을 부르는 말은 아버지의 남동생이 미혼이나 기혼이냐에 관계없이 ‘작은아버지’, ‘아저씨’, ‘삼촌’이다. 오늘날 ‘아저씨’는 혈족이 아닌 남자 어른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 지칭으로 쓰임이 확장되었지만 ‘아저씨’는 아버지의 남동생을 일컬을 때에 여전히 쓸 수 있는 말이다. ‘삼촌’은 관계를 나타낸 말이어서 호칭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삼촌’은 ‘삼촌숙(三寸叔)’의 준말로써 아버지의 형제를 부르고 가리키는 말로 쓰였고, 사전에까지 등재되어 있으므로 쓸 수 있는 호칭이다.

나이가 뒤바뀐 숙질간에도 호칭과 지칭은 마찬가지이다. 경어법상의 등급은 어렸을 때에는 서로 말을 놓고 지내지만, 성년이 되어서는 조카가 아저씨보다 나이가 다섯 살 이상이면 서로 존대하고, 다섯 살 미만이면 향렬을 따라서 조카가 아저씨에게 존대를 해야 한다. 한편 장조카인 경우는 예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아버지 형제가 여럿일 경우 이를 구분해 말하는 법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부 지방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에서, 아버지를 기준으로 하여 아버지보다 위이면 ‘큰아버지’, 아버지보다 아래이면 ‘작은아버지’라고 한다. 그래서 이를 표준 언어 예절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아버지의 형제가 다섯인데 아버지가 그 가운데 셋째라면, ① ‘큰아버지’ 또는 ‘첫째 큰아버지’, ② ‘큰아버지’ 또는 ‘둘째 큰아버지’, ③ ‘아버지’, ④ ‘작은아버지’ 또는 ‘첫째 작은아버지’, ⑤ ‘작은아버지’ 또는 ‘둘째 작은아버지’ 또는 ‘막내 작은아버지’라고 한다.

아버지의 남동생을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과 같이 ‘작은아버지’, ‘아저씨’, ‘삼촌’이라고 한다. 내가 남자일 경우에 자녀에게는 자녀의 입장에서 ‘작은할아버지’라고 하거나 지역 이름을 넣어 ‘장충동 작은할아버지’, ‘장충동 할아버지’처럼 지칭하고 ‘종조(從祖)’를 붙인 ‘작은종조할아버지’, ‘종조할아버지’, ‘작은종조부’, ‘종조부’를 쓸 수도 있는데 이 말들 뒤에 ‘-님’을 붙일 수도 있다. 또 ‘아버지 작은아버지’를 쓸 수도 있다.

한편, 내가 여자일 경우에 친정 작은아버지가 자녀에게는 외할아버지의 남동생이 되므로, 작은아버지에 ‘외-’를 붙여 ‘작은외할아버지’라고 지칭하거나 지역 이름을 넣어

‘장충동 작은외할아버지’, ‘장충동 외할아버지’ 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외종조(外從祖)’를 붙인 ‘작은외종조할아버지’, ‘외종조할아버지’, ‘작은외종조부’, ‘외종조부’를 쓸 수도 있는데 이 말들 뒤에 ‘-님’을 붙일 수도 있다. 또 ‘어머니 작은아버지’를 쓸 수도 있다.

아버지의 남동생을 그 자녀에게 가리킬 때는 그 당사자의 자녀가 나보다 어리거나 동갑인 경우에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버지’, ‘아빠’로 지칭하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나의 입장에서 ‘작은아버지’로 지칭한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작은아버지’, ‘숙부(叔父)’, ‘아저씨’, ‘삼촌’으로 지칭한다.

표 I-54 아버지의 남동생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작은아버지, 아저씨, 삼촌
지 칭	당사자에게	작은아버지, 아저씨, 삼촌
	자녀에게	작은할아버지, 작은할아버님, ○○[지역] 작은할아버지, ○○[지역] 작은할아버님, ○○[지역] 할아버지, ○○[지역] 할아버님
	당사자의 자녀에게	아버지, 아빠, 작은아버지
	그 밖의 사람에게	작은아버지, 숙부, 아저씨, 삼촌

아버지 남동생의 아내

아버지 남동생의 아내를 부르는 말은 ‘작은어머니’이다.

I. 가정에서의 호칭, 지칭

아버지 남동생의 아내를 그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과 같이 ‘작은어머니’라고 한다. 내가 남자일 경우에 자녀에게는 자녀의 입장에서 ‘작은할머니’라고 하거나 지역 이름을 넣어 ‘장충동 작은할머니’, ‘장충동 할머니’처럼 지칭할 수 있으며 ‘종조(外從祖)’를 붙인 ‘작은종조할머니’, ‘종조할머니’, ‘작은종조모’, ‘종조모’를 쓸 수도 있는데 이 말들 뒤에 ‘-님’을 붙일 수도 있다. 또 ‘아버지 작은어머니’를 쓸 수 있다.

한편, 내가 여자일 경우에 친정 작은어머니가 자녀에게는 외할아버지 남동생의 아내가 되므로, 남자가 작은어머니를 지칭하는 말에 ‘외-’를 덧붙여 ‘작은외할머니’라고 하거나 지역 이름을 넣어 ‘장충동 작은외할머니’, ‘장충동 외할머니’라고 할 수 있으며 ‘외종조(外從祖)’를 붙인 ‘작은외종조할머니’, ‘외종조할머니’, ‘작은외종조모’, ‘외종조모’를 쓸 수도 있는데 이 말들 뒤에 ‘-님’을 붙일 수도 있다. 또 ‘어머니 작은어머니’를 쓸 수도 있다.

아버지 남동생의 아내를 그 자녀에게 가리킬 때는 그 당사자의 자녀가 나보다 어리거나 동갑인 경우에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머니’, ‘엄마’로 지칭하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나의 입장에서 ‘작은어머니’로 지칭한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작은어머니’, ‘숙모(叔母)’로 지칭한다.

표 I-55 아버지 남동생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작은어머니
지 칭	당사자에게	작은어머니
	자녀에게	작은할머니, 작은할머님, ○○[지역] 작은할머니, ○○[지역] 작은할머님, ○○[지역] 할머니, ○○[지역] 할머님
	당사자의 자녀에게	어머니, 엄마, 작은어머니
	그 밖의 사람에게	작은어머니, 숙모

아버지의 누이

아버지의 누이를 부르는 말은 ‘고모’, ‘아주머니’이다. 오늘날 ‘아주머니’ 역시 혈족이 아닌 여자 어른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 지칭으로 쓰임이 확장되었지만 ‘아주머니’는 아버지의 누이를 일컬을 때에 여전히 쓸 수 있는 말이다.

아버지의 누이를 그 당사자에게 지칭하는 말은 호칭과 같은 ‘고모’, ‘아주머니’이다. 내가 남자일 경우에 아버지의 누이를 자신의 자녀에게 지칭할 때는 자녀의 위치에 서서 ‘대고모’, ‘대고모님’, ‘왕고모’, ‘왕고모님’이라고 한다. 그런데 요즘 ‘고모할머니’라는 말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더 널리 쓰이고 있다. 이러한 말은 이 밖에도 어머니의 자매를 가리키는 ‘이모할머니’, 어머니 자매의 남편을 가리키는 ‘이모할아버지’, 아버지 누이의 남편을 가리키는 ‘고모할아버지’가 있다. 이런 말을 인정할 것이냐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현실을 존중하여 어린이들이 쓰는 말로 인정한다. 따라서 아버지의 누이를 자신의 어린 자녀에게 지칭할 때도 ‘고모할머니’라고 할 수 있고, 그 경칭인 ‘고모할머니’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고모할머니’의 ‘고모’ 대신 ‘미금 할머니’ 또는 ‘일산 할머니’처럼 할머니 앞에 ‘미금’, ‘일산’과 같은 지역 이름을 넣어 ‘○○[지역] 할머니’, ‘○○[지역] 할머니’를 쓸 수도 있다. 또 ‘아버지 고모’라고도 지칭할 수 있다.

아버지의 자매가 여럿이라면 ‘첫째 고모’, ‘둘째 고모’, ‘막내 고모’처럼 서열을 나타내는 말을 함께 써서 명확히 지칭하는 것도 가능하다.

내가 여자일 경우에는 내 아버지의 누이를 자녀에게 가리키는 특별한 지칭이 없는 실정이다. 만일 자녀에게 지칭해야 할 경우에는 지역 이름을 넣어 ‘미금 할머니’, ‘일산 할머니’ 등과 같이 쓰거나 ‘어머니 고모’를 쓰면 된다.

아버지의 누이를 그 자녀에게 가리킬 때 그 당사자의 자녀가 나보다 어리거나 동갑인 경우에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머니’, ‘엄마’로 지칭하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나의 입장에서 ‘고모’로 지칭한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고모’로 지칭한다.

표 I-56 아버지의 누이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고모, 아주머니
지 칭	당사자에게	고모, 아주머니
	자녀에게	대고모, 대고모님, 왕고모, 왕고모님, 고모할머니, 고모할머님, ○○[지역] 할머니, ○○[지역] 할머님
	당사자의 자녀에게	어머니, 엄마, 고모
	그 밖의 사람에게	고모

아버지 누이의 남편

아버지 누이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고모부’, ‘아저씨’이다.

아버지 누이의 남편을 그 당사자에게 지칭하는 말은 호칭과 같은 ‘고모부’, ‘아저씨’이다. 내가 남자일 경우에 아버지 누이의 남편을 자녀에게 지칭할 때는 자녀의 위치에 서서 ‘대고모부’, ‘대고모부님’, ‘왕고모부’, ‘왕고모부님’이라고 한다. 어린이들이 쓰는 말인 ‘고모할아버지’와 그 경칭인 ‘고모할아버님’도 쓸 수 있다. 한편 이들과 함께 지역 이름을 넣어 ‘○○[지역] 할아버지’, ‘○○[지역] 할아버님’이라고 지칭할 수도 있다. 또 ‘아버지 고모부’라고도 지칭할 수 있다.

내가 여자일 경우에는 아버지 누이의 남편을 자녀에게 가리키는 특별한 지칭이 없는 실정이다. 만일 자녀에게 지칭해야 할 경우에는 지역 이름을 넣어 ‘미금 할아버지’, ‘일산 할아버지’ 등과 같이 쓰거나 ‘어머니 고모부’를 쓰면 된다.

아버지 누이의 남편을 그 자녀에게 가리킬 때 그 당사자의 자녀가 나보다 어리거나 동

갑인 경우에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버지’, ‘아빠’로 지칭하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나의 입장에서 ‘고모부’로 지칭한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고모부’, ‘고숙’으로 지칭한다.

표 I-57 아버지 누이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고모부, 아저씨
지 칭	당사자에게	고모부, 아저씨
	자녀에게	대고모부, 대고모부님, 왕고모부, 왕고모부님, 고모할아버지, 고모할아버님, ○○[지역] 할아버지, ○○[지역] 할아버님
	당사자의 자녀에게	아버지, 아빠, 고모부
	그 밖의 사람에게	고모부, 고숙

어머니의 자매

어머니의 자매를 부르는 말은 ‘이모’, ‘아주머니’이다.

어머니의 자매를 그 당사자에게 지칭하는 말은 호칭과 같은 ‘이모’, ‘아주머니’이다. 내가 남자일 경우에 어머니의 자매를 자녀에게 지칭할 때는 ‘이모할머니’와 그 경칭인 ‘이모할머님’을 쓸 수 있다. 한편 이들과 함께 지역 이름을 넣어 ‘○○[지역] 할머니’, ‘○○[지역] 할머님’이라고 지칭할 수도 있다. 또 ‘아버지 이모’라고도 지칭할 수 있다. 어머니의 자매가 여럿이라면 ‘첫째 이모’, ‘둘째 이모’, ‘막내 이모’처럼 서열을 나타

나는 말을 함께 써서 명확히 지칭하는 것도 가능하다.

내가 여자일 경우에는 어머니의 자매를 자녀에게 가리키는 특별한 지칭이 없는 실정이다. 만일 자녀에게 지칭해야 할 경우에는 지역 이름을 넣어 ‘미금 할머니’, ‘일산 할머니’ 등과 같이 쓰거나 ‘어머니 이모’를 쓰면 된다.

어머니의 자매를 그 자녀에게 가리킬 때 그 당사자의 자녀가 나보다 어리거나 동갑인 경우에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머니’, ‘엄마’로 지칭하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나의 입장에서 ‘이모’로 지칭한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이모’로 지칭한다.

표 I-58 어머니의 자매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이모, 아주머니
지 칭	당사자에게	이모, 아주머니
	자녀에게	이모할머니, 이모할머님, ○○[지역] 할머니, ○○[지역] 할머님
	당사자의 자녀에게	어머니, 엄마, 이모
	그 밖의 사람에게	이모

어머니 자매의 남편

어머니 자매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이모부’, ‘아저씨’이다.

어머니 자매의 남편을 그 당사자에게 지칭하는 말은 호칭과 같은 ‘이모부’, ‘아저씨’이다. 내가 남자일 경우에 어머니 자매의 남편을 자녀에게 지칭할 때는 ‘이모할아버지’

와 그 경칭인 ‘이모할아버님’을 쓴다. 한편 이들과 함께 지역 이름을 넣어 ‘○○[지역] 할아버지’, ‘○○[지역] 할아버님’이라고 지칭할 수도 있다. 또 ‘아버지 이모부’라고도 지칭할 수 있다.

내가 여자일 경우에는 어머니 자매의 남편을 자녀에게 가리키는 특별한 지칭이 없는 실정이다. 만일 자녀에게 지칭해야 할 경우에는 지역 이름을 넣어 ‘미금 할아버지’, ‘일산 할아버지’ 등과 같이 쓰거나 ‘어머니 이모부’를 쓰면 된다.

어머니 자매의 남편을 그 자녀에게 가리킬 때 그 당사자의 자녀가 나보다 어리거나 동갑인 경우에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버지’, ‘아빠’로 지칭하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나의 입장에서 ‘이모부’로 지칭한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어머니 자매의 남편을 ‘이모부’, ‘이숙’으로 지칭한다.

표 I-59 어머니 자매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이모부, 아저씨
지 칭	당사자에게	이모부, 아저씨
	자녀에게	이모할아버지, 이모할아버님, ○○[지역] 할아버지, ○○[지역] 할아버님
	당사자의 자녀에게	아버지, 아빠, 이모부
	그 밖의 사람에게	이모부, 이숙

어머니의 남자 형제

어머니의 남자 형제를 부르는 말은 ‘외삼촌’, ‘아저씨’이다. 어머니의 남자 형제를 그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과 같이 ‘외삼촌’, ‘아저씨’라고 한다. 어머니의 남자 형제를 자녀에게 가리킬 때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외삼촌’ 또는 ‘어머니 외삼촌’과 같은 관계말을 쓰거나 ‘해운대 할아버지’, ‘부천 할아버님’처럼 지역 이름을 넣은 지칭을 쓴다. 내가 남자일 경우, 자녀에게 어머니의 남자형제를 가리키는 말로 ‘진외(陳外)할아버지’, ‘진외(陳外)할아버님’, ‘진외(陳外)종조부’, ‘진외(陳外)종조부님’이라고 할 수도 있다.

어머니의 남자 형제를 그 자녀에게 가리킬 때 외삼촌이 나보다 어리거나 동갑인 경우에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버지’, ‘아빠’로 지칭하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나의 입장에서 ‘외삼촌’, ‘외숙부’로 지칭한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어머니의 남자 형제를 ‘외삼촌’, ‘외숙’으로 지칭한다.

표 I-60 어머니의 남자 형제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외삼촌, 아저씨
지 칭	당사자에게	외삼촌, 아저씨
	자녀에게	아버지 외삼촌, ○○[지역] 할아버지, ○○[지역] 할아버님
	당사자의 자녀에게	아버지, 아빠, 외삼촌, 외숙부
	그 밖의 사람에게	외삼촌, 외숙

어머니 남자 형제의 아내

어머니 남자 형제의 아내를 부르는 말은 ‘외숙모’, ‘아주머니’이다. 어머니 남자 형제의 아내를 그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과 같이 ‘외숙모’, ‘아주머니’라고 한다. 내가 남자일 경우 어머니 남자 형제의 아내를 자녀에게 가리킬 때 관계를 쉽게 이해하도록 ‘아버지 외숙모’와 같은 관계말을 쓰거나 ‘미금 할머니’, ‘일산 할머니’처럼 지역 이름을 넣은 지칭을 쓴다. 또 어머니 남자 형제의 아내는 내 자녀 입장에서 할머니뻘이 되므로 ‘진외(陳外)’를 붙여 ‘진외할머니’, ‘진외할머님’, ‘진외종조모’, ‘진외종조모님’이라고 할 수도 있다.

어머니 남자 형제의 아내를 그 자녀에게 가리킬 때 외사촌이 나보다 어리거나 동갑인 경우에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머니’, ‘엄마’로 지칭하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나의 입장에서 ‘외숙모’로 지칭한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외숙모’로 지칭한다.

표 I-61 어머니 남자 형제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외숙모, 아주머니
지 칭	당사자에게	외숙모, 아주머니
	자녀에게	아버지 외숙모, ○○[지역] 할머니, ○○[지역] 할머님
	당사자의 자녀에게	어머니, 엄마, 외숙모
	그 밖의 사람에게	외숙모

조카와 그 배우자

남자 조카

동기의 자녀 가운데 남자는 그들이 어릴 때에는 이름을 부르고, 장성하면 ‘조카’ 또는 조카의 자녀에 기대어 ‘○○[조카의 자녀] 아범’, ‘○○[조카의 자녀] 아비’ 라고 부른다. 나이 많은 조카는 ‘-님’ 을 넣어 ‘조카님’ 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 동기의 자녀 가운데 남자를 지칭할 경우 호칭과 동일하게 ‘○○[이름]’, ‘조카’, ‘조카님’, ‘○○[조카의 자녀] 아범’, ‘○○[조카의 자녀] 아비’ 로 가리킨다.

여자 동기의 아들을 구별하여 가리켜야 할 때는 남자 동기의 아들과 구분하기 위해 한 자어 계열의 말로 지칭하여 그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남자는 누이의 아들을 ‘생질(甥姪)’ 로, 여자는 자매의 아들을 ‘이질(姪姪)’ 로 지칭한다.

남편의 남자 조카는 남편의 입장에서 부르고 가리키는 대로, 아내의 남자 조카는 아내의 입장에서 부르고 가리키는 대로 한다. 다만 아내의 남자 조카를 구별하여 지칭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아내가 가리키는 말에 ‘처’ 를 덧붙여 ‘처조카’ 등으로 지칭한다.

표 I-62 남자 조카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이름], 조카[친조카를, 남편의 조카를], 조카님[나이 많은 조카를], ○○[조카의 자녀] 아범, ○○[조카의 자녀] 아비
지 칭	○○[이름], 조카[친조카를, 남편의 조카를],

지 칭	조카님[나이 많은 조카를], ○○[조카의 자녀] 아범, ○○[조카의 자녀] 아비, 생질(甥姪)[누이의 아들을, 남편 누이의 아들을], 이질(姨姪)[자매의 아들을, 아내 자매의 아들을], 처조카[아내의 조카를]
-----	---

조카의 아내

동기 아들의 아내에게는 내가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같은 항렬이므로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르듯이 결혼 초에는 ‘아가’, ‘새아가’ 하고, 아이가 있으면 ‘아가’, ‘새아가’와 함께 ‘○○[조카의 자녀] 어멈’, ‘○○[조카의 자녀] 어미’로 부른다. 한자어 계열의 말인 ‘질부(姪婦)’[친조카의 아내를], ‘생질부(甥姪婦)’[누이의 며느리를], ‘이질부(姨姪婦)’[자매의 며느리를]로 부를 수도 있다.

동기 아들의 아내는 ‘자기’, ‘새자기’, ‘○○[조카의 자녀] 어멈’, ‘○○[조카의 자녀] 어미’, ‘조카며느리’, ‘질부’로 지칭한다.

여자 동기 아들의 아내를 구별하여 가리킬 때는 한자어 계열의 말로 지칭할 수도 있다. 남자는 누이 아들의 아내를 ‘생질부’, 여자는 자매 아들의 아내를 ‘이질부’로 지칭한다. 남편 조카의 아내는 남편이 부르고 가리키는 대로, 아내 조카의 아내는 아내가 부르고 가리키는 대로 호칭, 지칭한다. 다만 아내 조카의 아내를 구별하여 지칭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아내가 가리키는 말에 ‘처’를 덧붙여 ‘처조카며느리’, ‘처질부(妻姪婦)’, ‘처이질부(妻姨姪婦)’[아내 자매의 며느리를] 등으로 지칭한다.

표 I-63 조카의 아내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p>아가, 새아가, ○○[조카의 자녀] 어멈, ○○[조카의 자녀] 어미, 질부(姪婦)[친조카의 아내를, 남편 조카의 아내를], 생질부(甥姪婦)[누이의 며느리를], 이질부(姨姪婦)[자매의 며느리를]</p>
지 칭	<p>아기, 새아기, ○○[조카의 자녀] 어멈, ○○[조카의 자녀] 어미, 조카며느리[친조카의 아내를, 남편 조카의 아내를], 질부(姪婦)[친조카의 아내를, 남편 조카의 아내를], 생질부(甥姪婦)[누이의 며느리를, 남편 누이의 며느리를], 이질부(姨姪婦)[자매의 며느리를], 처조카며느리[아내 조카의 아내를], 처질부(妻姪婦)[아내 조카의 아내를], 처이질부(妻姨姪婦)[아내 자매의 며느리를]</p>

여자 조카

동기의 자녀 가운데 여자는 그들이 어릴 때에는 이름을 부르고, 장성하면 ‘조카’, ‘조카님’ 또는 조카의 자녀에 기대어 ‘○○[조카의 자녀] 어멈’, ‘○○[조카의 자녀] 어미’라고 부른다.

동기의 자녀 가운데 여자를 지칭할 경우 호칭과 동일하게 ‘○○[이름]’, ‘조카’, ‘조카님’, ‘○○[조카의 자녀] 어멈’, ‘○○[조카의 자녀] 어미’ 또는 ‘조카딸’, ‘질녀(姪女)’로 가리킨다.

여자 동기의 딸을 구별하여 가리킬 때는 한자어 계열의 말로 지칭할 수도 있다. 남자는 누이의 딸을 ‘생질녀(甥姪女)’로, 여자는 자매의 딸을 ‘이질(姨姪)’, ‘이질녀(姨姪女)’로 지칭한다. 남편의 여자 조카는 남편이 부르고 가리키는 대로, 아내의 여자 조카는 아내가 부르고 가리키는 대로 호칭, 지칭한다. 다만 아내의 여자 조카를 구별하여 지칭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아내가 가리키는 말에 ‘처’를 덧붙여 ‘처조카’, ‘처조카딸’, ‘처이질(妻姨姪)’ [아내 자매의 딸을], ‘처이질녀(妻姨姪女)’ [아내 자매의 딸을] 등으로 지칭한다.

표 I-64 여자 조카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이름], 조카[친조카를, 남편의 조카를], 조카님[나이 많은 조카를], ○○[조카의 자녀] 어멈, ○○[조카의 자녀] 어미
지 칭	○○[이름], 조카[친조카를, 남편의 조카를], 조카님[나이 많은 조카를], ○○[조카의 자녀] 어멈, ○○[조카의 자녀] 어미, 조카딸[친조카를, 남편의 여자 조카를], 질녀(姪女)[친조카를, 남편의 여자 조카를], 생질녀(甥姪女)[누이의 딸을, 남편 누이의 딸을],

지 칭	<p>이질(姨姪)[자매의 딸을], 이질녀(姨姪女)[자매의 딸을], 처조카[아내의 여자 조카를], 처조카딸[아내의 여자 조카를], 처이질(妻姨姪)[아내 자매의 딸을], 처이질녀(妻姨姪女)[아내 자매의 딸을]</p>
-----	---

조카의 남편

동기 딸의 남편도 장인이나 장모가 사위를 부르듯 ‘ㅇ 서방’, ‘ㅇㅇ[조카의 자녀] 아범’, ‘ㅇㅇ[조카의 자녀] 아비’ 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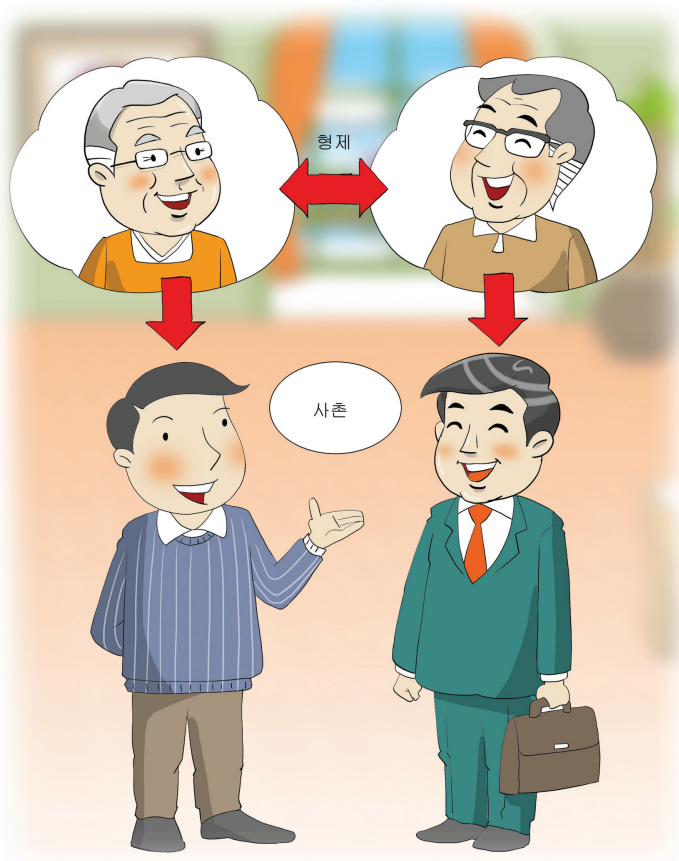
동기 딸의 남편을 지칭할 경우 호칭인 ‘ㅇ 서방’, ‘ㅇㅇ[조카의 자녀] 아범’, ‘ㅇㅇ[조카의 자녀] 아비’ 또는 ‘조카사위’, ‘질서(姪壻)’ 로 지칭한다. 여자 동기 딸의 남편을 구별하여 가리킬 때는 한자어 계열의 말로 지칭할 수도 있다.

남자는 누이 딸의 남편을 ‘생질서(甥姪壻)’ 로, 여자는 자매 딸의 남편을 ‘이질서(姨姪壻)’ 로 지칭한다. 남편 조카의 남편은 남편이 부르고 가리키는 대로, 아내 조카의 남편은 아내가 부르고 가리키는 대로 호칭, 지칭한다. 다만 아내 조카의 남편을 친조카의 남편과 구별하여 지칭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아내가 가리키는 말에 ‘처’ 를 덧붙여 ‘처조카사위’ [아내 조카의 남편을], ‘처질서(妻姪壻)’ [아내 조카의 남편을], ‘처이질서(妻姨姪壻)’ [아내 자매의 사위를] 등으로 지칭한다.

표 I-65 조카의 남편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 서방, ○○[조카의 자녀] 아범, ○○[조카의 자녀] 아비
지 칭	○ 서방, ○○[조카의 자녀] 아범, ○○[조카의 자녀] 아비, 조카사위[친조카의 남편을, 남편 조카의 남편을], 질서(姪壻)[친조카의 남편을, 남편 조카의 남편을], 생질서(甥姪壻)[누이의 사위를, 남편 누이의 사위를], 이질서(姨姪壻)[자매의 사위를], 처조카사위[아내 조카의 남편을], 처질서(妻姪壻)[아내 조카의 남편을], 처이질서(妻姨姪壻)[아내 자매의 사위를]

11. 사촌에 대하여



요즈음은 옛날에 비해 자녀 수가 적어 사촌이 없는 이들도 적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사촌은 매우 흔하고도 가까운 관계이다. 사촌은 크게 아버지 동기의 자녀와 어머니 동기의 자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사촌이 나보다 손위인지 손아래인지 또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 부르는 말과 가리키는 말이 달라진다.

아버지 동기의 자녀

아버지 동기의 자녀가 나보다 손위일 때 그 당사자를 부르는 말은 ‘형’, ‘○○[이름] 형’, ‘형님’, ‘○○[이름] 형님’, ‘오빠’, ‘○○[이름] 오빠’, ‘누나’, ‘○○[이름] 누나’, ‘누님’, ‘○○[이름] 누님’, ‘언니’, ‘○○[이름] 언니’이다. 사촌이 나와 동갑이거나 연하일 때에는 그 당사자를 이름으로 부른다. 나이가 든 경우에는 ‘동생’, ‘하우(남자가 남동생을 가리킬 때)’, ‘누이(남자가 여동생을 가리킬 때)’라고 부를 수도 있다.

아버지 동기의 자녀를 그 당사자와 그 배우자에게 가리킬 때에는 호칭과 마찬가지로 ‘형’, ‘○○[이름] 형’, ‘형님’, ‘○○[이름] 형님’, ‘오빠’, ‘○○[이름] 오빠’, ‘누나’, ‘○○[이름] 누나’, ‘누님’, ‘○○[이름] 누님’, ‘언니’, ‘○○[이름] 언니’로 지칭한다.

부모, 친척에게 손위인 사촌을 가리킬 때는 이름을 붙여 ‘○○[이름] 형’, ‘○○[이름] 형님’, ‘○○[이름] 오빠’, ‘○○[이름] 누나’, ‘○○[이름] 누님’, ‘○○[이름] 언니’로 지칭한다. 사촌이 동갑이거나 연하인 경우 당사자와 그 배우자, 나의 부모, 친척에게 이름으로 지칭한다.

사촌을 당사자의 자녀에게 가리킬 때는 그들의 입장에서 ‘아버지’, ‘아빠’, ‘어머니’, ‘엄마’라고 한다. 나의 친가 쪽 사촌을 자녀에게 가리킬 때에는 ‘아버지 사촌’, ‘아버지 고종사촌’, ‘어머니 사촌’, ‘어머니 고종사촌’과 같이 지칭한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친사촌을 가리켜 ‘사촌 형’, ‘사촌 형님’, ‘사촌 오빠’, ‘사촌 누나’, ‘사촌 누님’, ‘사촌 언니’, ‘사촌’, ‘사촌 동생’, 고종사촌을 가리켜 ‘고종형’, ‘고종형님’, ‘고종사촌 형’, ‘고종사촌 형님’, ‘고종사촌 오빠’, ‘고종사촌 누나’, ‘고종사

촌 누님', '고종사촌 언니', '고종사촌', '고종사촌 동생' 이라고 한다.

표 I-66 아버지 동기의 자녀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형, ○○[이름] 형, 형님, ○○[이름] 형님, 오빠, ○○[이름] 오빠, 누나, ○○[이름] 누나, 누님, ○○[이름] 누님, 언니, ○○[이름] 언니, ○○[이름] [동갑, 손아래 사촌일 경우]	
지 칭	당사자와 그 배우자에게	
	형, ○○[이름] 형, 형님, ○○[이름] 형님, 오빠, ○○[이름] 오빠, 누나, ○○[이름] 누나, 누님, ○○[이름] 누님, 언니, ○○[이름] 언니, ○○[이름] [동갑, 손아래 사촌일 경우]	
	부모, 친척에게	
	○○[이름] 형, ○○[이름] 형님, ○○[이름] 오빠, ○○[이름] 누나, ○○[이름] 누님, ○○[이름] 언니, ○○[이름] [동갑, 손아래 사촌일 경우]	
	당사자의 자녀에게	
	아버지, 아빠, 어머니, 엄마	
	그 밖의 사람에게	사촌 형, 사촌 형님, 사촌 오빠, 사촌 누나, 사촌 누님, 사촌 언니, 사촌, 사촌 동생
		고종형, 고종형님, 고종사촌 형, 고종사촌 형님, 고종사촌 오빠, 고종사촌 누나, 고종사촌 누님, 고종사촌 언니, 고종사촌, 고종사촌 동생

어머니 동기의 자녀

어머니 동기의 자녀가 나보다 손위일 때 그 당사자를 부르는 말은 ‘형’, ‘○○[이름] 형’, ‘형님’, ‘○○[이름] 형님’, ‘오빠’, ‘○○[이름] 오빠’, ‘누나’, ‘○○[이름] 누나’, ‘누님’, ‘○○[이름] 누님’, ‘언니’, ‘○○[이름] 언니’이다. 외사촌이 나와 동갑이거나 연하일 때에는 그 당사자를 이름으로 부른다. 나이가 든 경우에는 ‘동생’, ‘아우’, ‘누이(남자가 여동생을 가리킬 때)’라고 부를 수도 있다.

어머니 동기의 자녀를 그 당사자와 그 배우자에게 가리킬 때에는 호칭과 마찬가지로 ‘형’, ‘○○[이름] 형’, ‘형님’, ‘○○[이름] 형님’, ‘오빠’, ‘○○[이름] 오빠’, ‘누나’, ‘○○[이름] 누나’, ‘누님’, ‘○○[이름] 누님’, ‘언니’, ‘○○[이름] 언니’로 지칭한다.

부모, 친척에게 손위인 외사촌을 가리킬 때는 이름을 붙여 ‘○○[이름] 형’, ‘○○[이름] 형님’, ‘○○[이름] 오빠’, ‘○○[이름] 누나’, ‘○○[이름] 누님’, ‘○○[이름] 언니’로 지칭한다. 외사촌이 동갑이거나 연하인 경우 이름으로 지칭한다.

외사촌을 당사자의 자녀에게 가리킬 때는 그들의 입장에서 ‘아버지’, ‘아빠’, ‘어머니’, ‘엄마’라고 한다. 나의 외가 쪽 사촌을 자녀에게 가리킬 때에는 ‘아버지 외사촌’, ‘아버지 이종사촌’, ‘어머니 외사촌’, ‘어머니 이종사촌’ 등과 같이 지칭한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외사촌을 가리켜 ‘외사촌 형’, ‘외사촌 형님’, ‘외사촌 오빠’, ‘외사촌 누나’, ‘외사촌 누님’, ‘외사촌 언니’, ‘외사촌’, ‘외사촌 동생’, 이종사촌을 가리켜 ‘이종형’, ‘이종형님’, ‘이종사촌 형’, ‘이종사촌 형님’, ‘이종사촌 오빠’, ‘이종사촌 누나’, ‘이종사촌 누님’, ‘이종사촌 언니’, ‘이종사촌’, ‘이종사촌 동생’이라고 한다.

표 I-67 어머니 동기의 자녀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형, ○○[이름] 형, 형님, ○○[이름] 형님, 오빠, ○○[이름] 오빠, 누나, ○○[이름] 누나, 누님, ○○[이름] 누님, 언니, ○○[이름] 언니, ○○[이름] [동갑, 손아래 사촌일 경우]	
지 칭	당사자와 그 배우자에게	
	형, ○○[이름] 형, 형님, ○○[이름] 형님, 오빠, ○○[이름] 오빠, 누나, ○○[이름] 누나, 누님, ○○[이름] 누님, 언니, ○○[이름] 언니, ○○[이름] [동갑, 손아래 사촌일 경우]	
	부모, 친척에게	
	○○[이름] 형, ○○[이름] 형님, ○○[이름] 오빠, ○○[이름] 누나, ○○[이름] 누님, ○○[이름] 언니, ○○[이름] [동갑, 손아래 사촌일 경우]	
	당사자의 자녀에게	
	아버지, 아빠, 어머니, 엄마	
	그 밖의 사람에게	외사촌 형, 외사촌 형님, 외사촌 오빠, 외사촌 누나, 외사촌 누님, 외사촌 언니, 외사촌, 외사촌 동생
		이종형, 이종형님, 이종사촌 형, 이종사촌 형님, 이종사촌 오빠, 이종사촌 누나, 이종사촌 누님, 이종사촌 언니, 이종사촌, 이종사촌 동생

12. 사돈 사이



“남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 것은?” 하는 수수께끼가 있다. 가깝게 지내도 허물없는 사이가 될 수 없고, 멀다고 생각해도 남이 아닌 사돈 사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듯 조심스러운 관계인 사돈을 부르는 말은 항렬, 나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

같은 항렬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부모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부모를 호칭하는 말 가운데, 내가 아버지일 때 자녀 배우자의 아버지인 발사돈을 부르는 말은 ‘사돈어른’, ‘사돈’이다. 상대방이 나이가 위일 때는 ‘사돈어른’, 아래일 때는 ‘사돈’으로 부르도록 하고, 나이가 비슷하면 친밀한 정도에 따라 적절히 쓰도록 한 것이다. 자녀 배우자의 아버지를 그 당사자에게 지칭하는 말은 호칭인 ‘사돈어른’, ‘사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돈이 여러 사람이어서 혼란이 생길 때는 ‘서울 사돈어른’, ‘서울 사돈’처럼 ‘사돈어른’과 ‘사돈’ 앞에 사돈이 살고 있는 곳의 이름을 넣어 지칭할 수 있다. 이것은 아래의 다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자녀 배우자의 아버지를 자기 쪽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사돈’, ‘○○[외손주] 할아버지’, ‘○○[손주] 외할아버지’라 한다. 자녀에 기대어 ‘○○[자녀] 장인어른’, ‘○○[자녀] 시어른’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간접 지칭은 대부분 손아래 사람에게 지칭할 때 쓰이기 때문에 ‘사돈’을 원칙으로 한다. 사돈 쪽 사람에게는 ‘사돈어른’, ‘사돈’을 적절히 사용하고, ‘○○[외손주] 할아버지’, ‘○○[손주] 외할아버지’도 사용할 수 있다.

내가 아버지일 때 자녀 배우자의 어머니인 안사돈을 부르는 말은 ‘사부인’이다. 안사돈은 나이가 적어도 어려운 상대이므로 ‘사돈댁’의 존칭인 ‘사부인’이 바른 호칭어이다. 자녀 배우자의 어머니를 그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인 ‘사부인’을 그대로 쓴다. 자기 쪽 사람이나 사돈 쪽 사람에게는 ‘사부인’, ‘○○[외손주] 할머니’, ‘○○[손

주] 외할머니'로 지칭한다.

내가 어머니일 때 자녀 배우자의 아버지인 발사돈을 부르는 말은 '사돈어른', '발사돈'이다. 자녀 배우자 아버지의 나이가 아래이거나 관계가 친밀하여 '사돈어른'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사돈'을 쓴다. 자녀 배우자의 아버지를 그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인 '사돈어른', '발사돈'을 그대로 쓴다. 자기 쪽 사람에게는 '사돈어른', '발사돈', '○○[외손주] 할아버지', '○○[손주] 외할아버지'로 지칭하고, 사돈 쪽 사람에게는 '사돈어른', '○○[외손주] 할아버지', '○○[손주] 외할아버지'로 지칭한다.

내가 어머니일 때 자녀 배우자의 어머니인 안사돈을 부르는 말은 '사부인', '사돈'이다. 나이가 위이면 '사부인'으로, 나이가 아래이고 친밀한 사이이면 '사돈'으로 하도록 한 것이다. 자녀 배우자의 어머니를 그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인 '사부인', '사돈'을 그대로 쓴다. 자기 쪽 사람이나 사돈 쪽 사람에게는 '사부인', '○○[외손주] 할머니', '○○[손주] 외할머니'로 지칭한다.

표 I-68 자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호칭, 지칭

		내가 아버지인 경우		내가 어머니인 경우	
		자녀 배우자의 아버지를	자녀 배우자의 어머니를	자녀 배우자의 아버지를	자녀 배우자의 어머니를
호 칭		사돈어른, 사돈	사부인	사돈어른, 발사돈	사부인, 사돈
지 칭	당사자에게	사돈어른, 사돈	사부인	사돈어른, 발사돈	사부인, 사돈
	자기 쪽 사람에게	사돈, ○○[외손주] 할아버지, ○○[손주] 외할아버지,	사부인, ○○[외손주] 할머니, ○○[손주] 외할머니,	사돈어른, 발사돈, ○○[외손주] 할아버지, ○○[손주] 외할아버지,	사부인, ○○[외손주] 할머니, ○○[손주] 외할머니,

지 칭	사돈 쪽 사람에게	사돈어른, 사돈, ○○[외손주] 할아버지, ○○[손주] 외할아버지	사부인, ○○[외손주] 할머니, ○○[손주] 외할머니	사돈어른, ○○[외손주] 할아버지, ○○[손주] 외할아버지	사부인, ○○[외손주] 할머니, ○○[손주] 외할머니
--------	--------------	---	---	--	---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삼촌 항렬

내가 아버지일 때 자녀 배우자의 삼촌, 외삼촌을 부르는 말은 ‘사돈어른’, ‘사돈’이다.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도 호칭과 마찬가지로 ‘사돈어른’, ‘사돈’이라고 가리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녀 배우자의 삼촌, 외삼촌을 자기 쪽 사람에게는 ‘사돈’으로, 사돈 쪽 사람에게는 ‘사돈어른’, ‘사돈’이라고 지칭한다. 내가 아버지일 때 자녀 배우자의 고모, 이모를 부르는 말은 ‘사부인’이다. 자녀 배우자의 고모, 이모를 당사자, 자기 쪽 사람, 사돈 쪽 사람에게 지칭하는 말도 모두 ‘사부인’이다.

내가 어머니일 때 자녀 배우자의 삼촌, 외삼촌을 부르는 말은 ‘사돈어른’이지만 ‘사돈어른’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경우 ‘발사돈’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자녀 배우자의 삼촌 항렬을 그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자녀 배우자의 삼촌, 외삼촌을 가리켜 자기 쪽 사람, 사돈 쪽 사람에게 ‘사돈어른’이라고 한다. 내가 어머니일 때 자녀 배우자의 고모, 이모를 ‘사부인’, ‘사돈’이라 부른다.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도 호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자녀 배우자의 고모, 이모를 자기 쪽 사람, 사돈 쪽 사람에게 지칭하는 말은 ‘사부인’이다.

자녀 배우자의 삼촌 항렬을 자기 쪽 사람, 사돈 쪽 사람에게 가리킬 때에는 손주, 외손주에 기대어 ‘○○[외손주] 큰할아버지’, ‘○○[손주] 작은외할아버지’, ‘○○[외손주] 고모할머니’, ‘○○[손주] 이모할머니’ 등과 같은 관계말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표 I-69 자녀 배우자의 삼촌 항렬에 대한 호칭, 지칭

		내가 아버지인 경우		내가 어머니인 경우	
		자녀 배우자의 삼촌, 외삼촌을	자녀 배우자의 고모, 이모를	자녀 배우자의 삼촌, 외삼촌을	자녀 배우자의 고모, 이모를
호 칭		사돈어른, 사돈	사부인	사돈어른, 발사돈	사부인, 사돈
지 칭	당사자에게	사돈어른, 사돈	사부인	사돈어른, 발사돈	사부인, 사돈
	자기 쪽 사람에게	사돈	사부인	사돈어른	사부인
	사돈 쪽 사람에게	사돈어른, 사돈	사부인	사돈어른	사부인

동기 배우자(형수, 올케 등)의 동기 및 그 배우자

동기 배우자(형수, 매부, 올케 등)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 지칭은 나의 성별에는 관계없이 상대방이 남자인가 여자인가에 따라 구별된다. 동기 배우자의 동기와 그 배우자가 남자일 때에는 호칭으로 ‘사돈’, ‘사돈도령’, ‘사돈총각’을 쓴다. 동기 배우자의 남자 동기를 부를 때에는 나이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전체를 총괄하는 말로 ‘사돈’을 쓰고, 미혼이면 상황에 따라 ‘사돈도령’, ‘사돈총각’을 쓸 수 있다. ‘사돈총각’은 낮추는 말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결혼할 나이의 남자에게는 ‘사돈총각’이 더 어울리고 실제로 많이 쓰이는 말이다.

동기 배우자의 동기와 그 배우자가 남자일 경우, 당사자와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을 그대로 쓴다.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조카에 기댄 말인 ‘○○[조카]

I. 가정에서의 호칭, 지칭

삼촌', '○○[조카] 외삼촌' 등을 지칭으로 쓸 수도 있다.

동기 배우자의 동기와 그 배우자가 여자일 때에는 호칭으로 '사돈', '사돈아가씨', '사돈처녀'를 쓴다. 동기 배우자의 여자 동기를 부를 때는 전체를 총괄하는 말로 '사돈'을 쓰고, 미혼이면 '사돈아가씨', '사돈처녀'를 상황에 따라 적절히 구별하여 쓸 수 있다.

동기 배우자의 동기와 그 배우자가 여자일 경우, 당사자와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을 그대로 쓴다.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조카에 기댄 '○○[조카] 고모', '○○[조카] 이모' 등과 같은 관계말을 지칭으로 쓸 수도 있다.

표 I-70 동기 배우자의 동기 및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 지칭

		남 자	여 자
호 칭		사돈, 사돈도령, 사돈총각	사돈, 사돈아가씨, 사돈처녀
지 칭	당사자에게	사돈, 사돈도령, 사돈총각	사돈, 사돈아가씨, 사돈처녀
	그 밖의 사람에게	사돈, 사돈도령, 사돈총각	사돈, 사돈아가씨, 사돈처녀

위 향렬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조부모 및 동기 배우자(형수, 올케 등)의 부모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조부모는 자신과 지칭 대상의 성별에 관계없이 '사장어른'이라고 부른다. 전통적으로 '사돈'은 같은 향렬 이하를, '사장'은 위 향렬을 가리키

는 말이라서 ‘사장어른’을 표준 언어 예절로 삼는다. 상황에 따라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여, 할머니를 부르는 말로 ‘안사장 어른’을 쓸 수도 있다.

자녀 배우자의 조부모를 당사자와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인 ‘사장어른’을 그대로 쓴다.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 ‘○○[딸] 시조부모’, ‘○○[아들] 처조부모’ 등과 같은 관계말을 쓸 수도 있다. 자녀 배우자의 조부모보다 한 항렬이 높으면 ‘사장어른’ 앞에 ‘노-’를 붙여 ‘노사장어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다.

동기 배우자(형수, 매부, 율케 등)의 부모도 남녀 구분 없이 ‘사장어른’으로 부른다. 동기 배우자의 부모를 당사자와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인 ‘사장어른’을 그대로 쓴다.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 조카에 기댄 ‘○○[조카] 할아버지’, ‘○○[조카] 외할아버지’, ‘○○[조카] 할머니’, ‘○○[조카] 외할머니’와 같은 관계말을 지칭으로 쓸 수도 있다.

표 I-71 자녀 배우자의 조부모 및 동기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호칭, 지칭

호 칭		사장어른
지	당사자에게	사장어른
칭	그 밖의 사람에게	사장어른

아래 항렬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동기와 그 자녀, 동기 배우자(형수, 율케 등)의 조카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동기와 그 자녀, 동기 배우자(형수, 매부, 율케 등)의 조

카와 같이 아래 항렬은 말하는 사람의 성별과는 관계없이 상대방이 여자인가 남자인가에 따라 호칭과 지칭이 달라진다.

아래 항렬의 남자는 나이와 상황에 따라 ‘사돈’, ‘사돈도령’, ‘사돈총각’으로 적절히 부른다. 전체를 총괄하는 말로 상대방이 항렬이 낮더라도 ‘사돈’으로 예우를 하는 것이 전통이고, 상황에 따라 미혼인 경우에는 ‘사돈도령’, ‘사돈총각’을 쓴다. 아래 항렬의 남자를 당사자와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을 그대로 쓴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손주, 외손주 또는 조카에 기댄 ‘○○[외손주] 삼촌’, ‘○○[손주] 외삼촌’, ‘○○[외손주, 조카] 사촌 형’, ‘○○[외손주, 조카] 고종사촌 형’, ‘○○[손주, 조카] 외사촌 형’, ‘○○[손주, 조카] 이종사촌 형’ 등과 같은 관계말을 적절히 지칭으로 쓸 수 있다.

아래 항렬의 여자를 부르는 말은 ‘사돈’, ‘사돈아가씨’, ‘사돈처녀’이다. 전체를 총괄하는 말로 ‘사돈’을 쓰고, 상황에 따라 미혼이면 ‘사돈아가씨’, ‘사돈처녀’를 적절히 조정하여 부르도록 한다. 아래 항렬의 여자를 당사자와 그 밖의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호칭을 그대로 쓴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손주, 외손주 또는 조카에 기댄 ‘○○[손주] 이모’, ‘○○[외손주] 고모’, ‘○○[외손주, 조카] 사촌 언니’, ‘○○[외손주, 조카] 고종사촌 언니’, ‘○○[손주, 조카] 외사촌 언니’, ‘○○[손주, 조카] 이종사촌 언니’ 등과 같은 관계말을 지칭으로 쓸 수 있다.

표 I-72 자녀 배우자의 동기와 그 자녀, 동기 배우자의 조카에 대한 호칭, 지칭

		남 자	여 자
호 칭		사돈, 사돈도령, 사돈총각	사돈, 사돈아가씨, 사돈처녀
지 칭	당사자에게	사돈, 사돈도령, 사돈총각	사돈, 사돈아가씨, 사돈처녀
	그 밖의 사람에게	사돈, 사돈도령, 사돈총각, ○○[외손주] 삼촌, ○○[손주] 외삼촌	사돈, 사돈아가씨, 사돈처녀, ○○[손주] 이모, ○○[외손주] 고모